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오직 성경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5월 1일 (토) 제 182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지구촌 종교적 자유 악화되고 있다!

CT,USCIRF '2021 연례보고서 통해 "3개국 중 1개국 종교적 자유준중 안된다" 지적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발표한 제22차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3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95%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3 Fewer Hot Spots for Trump-Biden Handover on Religious Freedom: USCIRF chair Gayle Manchin explains why 22nd annual report by US watchdog agency reduces tally of offending nations, yet too many on black list still "don't seem to care.").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CT,마크레그네루스 교수글로벌리서치 통해 크리스천 비혼증가 이유와 교회통한 해결방안 소개(상)

현재 지구촌은 출산율보다 심각한 결혼을 저하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비혼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가족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나이가 든 모습이나 생활에 대해서도 거의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혼 혹은 자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더 많다. 인식의 변화 외에 소득의 전반적인 감소 역시 혼인을 감소의 주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남성 중 35%만이 결혼했으며, 2005년 50%와 비교했을 때 급격히 떨어졌다.

크리스천의 결혼/가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온 마크 레그네루스(Mark Regnerus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nd a senior fellow at the Austin Institute for the Study of Family and Culture) 교수는, 여기에 보수적인 크리스천들까지 동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결혼을 감소는 명확하고 무서운 궤적을 향해가며, 결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Can the Church Save Marriage?: Matrimony rates are in decline, even among conservative Christians. Here's what that means for the future).

결혼은 인간이 사랑 또는 경제적 실용성의 이유로 지난 수 천 년 동안 해온 일이다. 결혼에 관한 전통적,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에 더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 반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념적이며 단기적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규범을 따르며 '선택권을 계속 열어두기' 위한 노력을 한다.



우리 시대 결혼의 또 다른 새로운 방해물은 바로 전염병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경험으로 몇 달간 많은 결혼식이 지연되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관계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훨씬 전에 필자는 사회학자로서 특히 교회 안에서 결혼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퍼져있는지 궁금해졌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들을 결혼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결혼을 장려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미국 크리스천들은 이 주제에 대해 예외적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국의 크리

스천들은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길 권하는 전반적인 문화적 메시지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보았다.

혼은 이제 다른 단어와 같은 범주에 있는 기피단어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이라는 접까지 추가되면 동료들 사이에서 유행에 뒤처졌다는 낙인이 찍히고 만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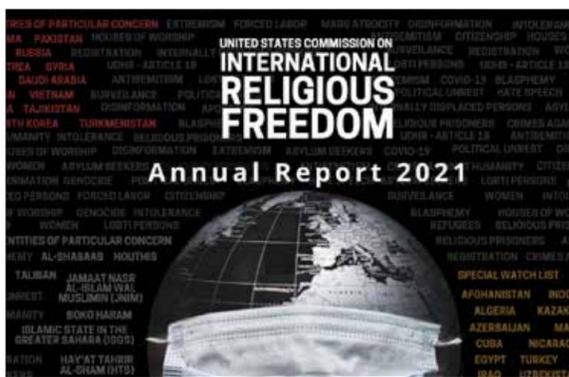
3면 푸른초장 육민호 목사



4면 인터뷰 16면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 지위 유지" 권고

미 정부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800페이지 분량의 2001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9개 국가에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문제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얀마(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특별관심국가(CPC)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가운데,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거론했다.

또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는 쿠바와 니카라과를 특별감시국가 목록(SWL)에 추가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자유를 평가하며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또 국무부가 공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향후 대북정책에서 안보와 인권을 상호보완적인 목표(complementary objectives)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대가로 특정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 법이 전단, 성경, 문화적 물품과 같은 종교적인 물품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이러한 물품을 보내는 다수 활동가들은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며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해당 법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백스텔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5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총회 임원회와 노회장연석회의에서 비대면 총회로 결정되었기에 제45회 총회 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21년 5월 18일(화) - 5월 19일(수) 미국 동부시간 오후 7시, 미국 서부시간 오후 4시 *비대면 총회 일정은 추후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사무엘하 11:6-17) 2. 총회장소 세계소망교회 (Zoom 화상 회의)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3.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미화(USD) \$50.00 입니다. *각 노회 공로,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한 \$25.00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에 공식 등록된 선교사들은 무료로 이번 총회에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등록 및 접수 안내 -미처 등록 못한 총대들은 추가등록 연장된 4월 25일(주일)까지 등록바랍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은 https://forms.gle/gnvlZPobGnamCmj8 입니다. -스마트폰에 QR Code Reader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옆의 이미지를 스캔하시고 바로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후 등록 현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접수된 총대들에게는 2차례의 Zoom 접속 예행연습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5. 송금 안내 등록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또는 money orde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APC LA *주소 : Elder. Jeyong Lee (이제용 장로) KAPC Los Angeles 1131 S. Bronson Ave, #107 Los Angeles, CA 90019 6. 동시 통역 및 제반 사항 안내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을 자막으로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2) 비대면 총회 일정은 추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3)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혹시라도 담당자들과 바로 연결이 안될 경우, 총준위 대표 전화 및 음성서서함인 (213) 373-4988 과 e-mail 45KAPC@gmail.com 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일정: 총 무 김성일 목사 (760) 220-3263 등록: 서 기 이훈우 목사 (213) 924-1655 접수: 회 계 이제용 장로 (213) 326-6582 주후 2021년 4월 19일 준비위원장: 박대원 목사 서 기 : 이훈우 목사 총 무 : 김성일 목사 총회장: 조문위 목사 서 기: 이훈우 목사

발행인 칼럼

기독교의 영성, 어린아이에서 찾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다. 상큼한 바람결에 어린 나무들이 아직은 열은 푸른 옷을 입고...

뛰놀던 그 어린 시절이 그림다.

“쫄그만 게 까불어.” 적지 않은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셨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특권의식이 없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움켜쥐는 것보다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 은연중에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부인, 십자가를 짐,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찾아진다는 것이 경이롭다.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다

산업화 전까지 가족의 사명은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 가족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기반으로 발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가



그 명령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졌다(창1:28).

에덴동산을 가꾸고 일하는 것은 아담 혼자 할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했고 아담의 동반자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

작은 같은 공간 안에 동거하는 것을 의미했고, 또한 서로가 곁에 서서 공동된 사업을 하는 것(비록 반드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의미했다.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가정과 일터를 분리해버린

산업혁명과 함께 바뀌었다. 19세기가 지나면서 많은 아버지는 일터로 나갔고 집에는 어머니와 자녀만 남았다.

재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현대적인 가정 대부분이 필요한 것을 밖에서 조달했다. 공장, 회사, 슈퍼마켓, 학교, 그리고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가족은 더 이상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공동된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지 않게 됐을 때 가족은 쉽게 분리됐다.

알라스테어 로버트(Alastair Roberts)

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압박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 무엇이다... 가족 전체에게 주어진 짐의 무게가 거의 사라졌을 때, 가족은 그냥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가질 뿐이다.

가족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각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사명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8-19).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류에게 준 명령과 언약의 이행을 다음 세대에 바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다.

(4면으로 계속)

Bethesda Dental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Joon Mo Myung, MD advertisement for a dental clinic.

Church of God 39th Anniversary event advertisement with dates, location, and speaker photos.

지구촌 종교적 자유 악화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아울러 보고서는 탈북민이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최근 몇년새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019년 1천47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그 수가 230여명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20년 만에 최저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 인권단체 '한국미레이니셔티브'의 지난해 보고서에 인용해, 북한 당국은 종교활동, 성경 등 종교물품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 내 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국가안전보위성(Ministry of State Security)은 기독교인, 인민보안성(Ministry of People's Security)은 무속 신앙을 믿는 주민들을 박해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종교자유위 위원들도 이날 북한 내 종교자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레더릭 데이(Frederick Davie) 위원은 이날 개최된

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국가적 폐쇄로 최근 북한관련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북한 내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리가 아는 것은 2020년,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는 여전히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제한된 종교시설 외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체포, 고문, 투옥, 처형 등을 포함합니다.”

데이 위원은 또 북한의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 북한 지도자만을 신격화해 다른

이데올로기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를 가진 주민들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제임스 카(James Carr) 위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종교 탄압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USCIRF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해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위원회로 창설됐으며, 국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납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럼에도 계속 조사를 했으며 지난 1년간 글로벌리서치 팀과 멕시코,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레바논, 나이지리아, 미국 등 7개국에 걸쳐 약 200명의 교회 청년들과 크리스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다. 결혼에 대한 회의론은 서구를 넘어 널리 퍼져 있었다. 멕시코시에서 모스크바, 베이루트에서 라고스까지도 퍼져있었다. 자료를 연구하고 흠어진 퍼즐조각을 모으면서 전 세계의 젊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결혼과 관련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선택, 더 많은 선택, 더 큰 유혹, 더 높은 기대, 지속적 불안 및 고질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결혼과정에 관한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혼 제도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직면했다.

스페인에서 의대를 다니

는 25세 안데르는 곧 결혼한다. 의사인 동료와 6년 동안 교제한 후 결혼하는 이 남자는 결혼 전에 확신이 넘칠 거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몰았다.

그는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타협해야 하니 까요.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것들이 있겠지요. 지금은 관용아도 나중에는

민에 관한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혼 전에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안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불안이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병적이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안데르는 결혼율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 시대

세에 결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미국 남성은 50%만이 결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음주의자들의 대응

이에 관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014년 오스틴 연구소가 한 전국적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자칭 복음주의자 중 56%

지구촌, 출산율보다 심각한 결혼을 저하 현상 젊은 크리스천들,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와 희생에 대한 낮은 관용 보여

문제가 될 겁니다.” 그에게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 묻자 “부부 사이에는 분명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겁니다.” 6년간 교제했으면 누군가를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않냐고 묻자 “전 그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안데르는 자신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배경이 자신의 고

의 기독교인 남자 중 한 사람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7개국의 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결혼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예측 결과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폴란드 여성의 76%는 30세에 결혼하고, 35세에는 88%가 결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과 스페인에서 같은 연령의 여성보다 약 10%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과 비성도들 사이의 결혼격차는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에서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남성의 72%가 35

가 현재 결혼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같은 연령인구가 기록한 42%를 훨씬 상회한다. 4년 후에 실시된 조사에서 수치는 명백히 하락했다. 2018년 후반에 복음주의자 20-39세 중 51%가 결혼했으며, 전체 인구의 40%가 결혼했다. 숫자는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 동거하고 있다고 말한 복음주의자들은 같은 기간에 3.9%에서 6.7%로 증가했다. 동거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2014년 인구의 16%에서 2018년 말까지 27%로 증가했다. 설문에 응한 복음주의자들 중 소수만이 결혼이 ‘낮은 인식’이라고 말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은 결혼을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하늘을 바라보며 광야를 걷는다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로교회)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인생에서 고난의 골짜기와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사람을 견디게 하는 한 마디입니다. 팬데믹의 어둠을 지나는 삶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막한 광야 길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내일이라는 꿈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 호흡하는 것마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신자든 불신자든 광야 같은 적막한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이란 광야에서 있던 바다 한복판을 향해하는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인생길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찬송은 계속 들려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광야로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없지만 광야 같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야 길의 극복은 광야를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광야에서도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고난의 삶을 살아간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닫은 머리를 숙이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바람에 의지하여 날아갑니다. 인생길이 늘 빗발 화려한 길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빛이라도 한 시절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 향기를 다할 때가 있고 바람에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련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만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족시인 이육사는 일제 치하의 어둠 속에서 민족해방을 꿈꾸며 ‘광야’라는 시에서 노래합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께 하리라.” 우리에게 천고 뒤가 아니라 이미 2천년 전에 영혼의 진정한 해방자가 되시는 초인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젠가 역사의 어둠을 뚫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걸어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신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의 문을 여셨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승리를 맞보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광야 길에서 있다고 생각할 때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광야를 행복한 여행처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사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 길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언젠가 들어갈 가나안인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성취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하나의 통과 과정으로 여기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감동해야 할 사명에 더욱 충실하게 됩니다. 아직 팬데믹으로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똑 같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부디 하늘을 바라보며 평강과 소망을 노래하며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육목사 청빙 / Seeking Education Director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갈보리장로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합니다.

We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are currently seeking a part-time or full-time pastor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 자격요건**
 -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영어,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 우대
- 섭기는 사역**
 - 교육부서 전담
 -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협의 후 결정
- 지원서류**
 - 이력서
 -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 자기 소개서
 - 신앙 간증
 - 추천서 2부
- 서류제출**
 - 서류 접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보내주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ualifications:

- Currently attending or graduated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preferred, not required

Position:

- Education pastor
-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Requirements:

- Current resume
- Recent photos of you and your family
-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 Personal testimony of faith
-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o "drjho@hotmail.com" or by regular mail.

갈보리장로교회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담임목사: 조응철, 소속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회주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충현선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85년 설립한 이후 36년 동안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자격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이민목회 경험자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 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6월 30일 (소인 기준)

제출처: chmccallcommittee@gmail.com

기타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충현선교교회
www.choonghyun.org
Tel (818) 549-9191 Fax (818) 549-9199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바보

어릴 때 시골에 한 바보가 있었다. 그는 항상 누런 콧물이 코에 달려 있었고 해설프게 웃고, 결코 화를 낼 줄 몰랐다. 아이들이 심심하면 그를 놀리고 해코지를 해도 그저 히죽거렸다. 그래서 누구나 그를 향해 “바보”라고 불렀다. 그런데 멀쩡한 지능을 가지

고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신학교 동기생 중 시골 전도사가 시무하는 나이 많은 분이 있었다. 전도사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규정상 신학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교회에 적을 둘 때 비로소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

어 있었다. 그 후부터 세레나 성찬식을 인도할 수 있기에 전도사는 누구나 안수를 받으려고 했다. 그 전도사들 중에 기억나는 50대 후반의 바보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의 간증이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교회의 기동 집사가 주동이 되어 전도사에게 탄지를 자주 걸었다고 한다. 흔히, 설교가 시원찮다, 영력이 없다, 등등의 비판이 다. 많지 않은 교인들인데 중진 앞장서서 반대하게 될 때 분위기는 찬바람 부는 광야가 된다.

전도사는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혼자 몸이 아니기에 전도사가 교회를 사임하는 일은 곤란한 문제가 야기된다. 더구나 다른 교회를 간섭 없이 맡게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자신을 비판하는 자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삶이 송두리째 뒤엎어지는 불안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선 집사의 형편이 몹시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전날 밤에, 은퇴금으로 받은 쌀 한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몰래 자신을 쫓아낸 집사의 마루에 가져다놓았다. 그리고 이튿날 조용히 교회를 떠났다. 큰 바보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세상에는 짝짝 놀랄만한 영악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어느 한 곳 빈틈이 없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여 똑똑함이 하늘을 찌르고, 푹 소리가 날 정도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들로 인해 밝아지고 맑아져야 하는 데도 그렇지 않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둡고 10년 전보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 훨씬 더 각박하다. 지식이 편만하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이럴까? 바보는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살기

는 더욱 힘들어졌다. 배움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지식을 통해 범람을 피해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묘하게 사술을 부리고 있다. 옛날에는 하나를 잡으면 다른 면은 양보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권력을 잡은 자가 돈도 탐한다. 이런 현상은 동 서양이 비슷하다. 선진국의 정치가들 중에도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큰 재산을 이룬 자들이 부지기수다.

세상의 학문은 자꾸 영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타인을 향한 바보, 국민을 위한 바보, 팔로워를 위한 바보의 길을 포기하도록 한다. 그 결과 세상은 모래알처럼 뭉치지 못하고 광야처럼 흠바람만 몰아치게 한다. 이런 삭막한 세상인데도 바보들은 있다. 나는 살만큼 살았다고 부족한 산소 호흡기를 젊은이에게 양보하고 죽는 바보도 있다.

16세기에 불란서의 위그노들은 말슴대로 산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다. 여자들에게는 개종하겠다는 표현만으로 회복시켜주었는데, 체포된 것 먹이를 둔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간단한 표시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다. 화형당하기 전 여인은 집행관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젓 먹일 시간을 주세요.” 아이에게 젓을 먹인 후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하고는 미련 없이 화형대의 계단으로 올라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 시대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 바보의 길을 택한 사람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 “바보, 그 명사가 왜 이처럼 그리워지는가!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육민호 목사
(뉴저지 주수원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사십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을 향한 목표가 세워진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꿈과 성공은 가치의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들이 흔히 어떠한 위치까지 오르는 일에 힘을 쓰는 반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가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들은 흔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에 위치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세상을 향해 바르게 대하는 첫 걸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윗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

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139:13,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에 우리들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하며 스스로 가치 있다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도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

쁜 마음으로 건축자재인 백향목, 잣나무와 금을 지원하고 기술자들까지 넉넉하게 지원했어 요. 20년간의 성전과 왕국 건축 두 공사는, 이웃 나라인 두로 왕 히람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였어 요.

그런데 히람 왕도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두로 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도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

열왕기상 9장 10-13절

주었어 요.

건축이 끝난 뒤 두로의 히람 왕에게 땅을 주는데 갈릴리 땅 20곳을 줍니다(11절). 그러자 히람 왕은 들뜬 기대감으로 현장 답사를 하지만 큰 실망을 하고 말아요(12절). 히람 왕에게는 농경지가 필요했는데 산지였고 석회질이 많았어 요. 그래서 탐탁지 않다면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러요(13절). “가불”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황폐한”이라는 뜻이었어 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땅을 돌려줍니다(대하8:2).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갈릴리 땅을 왜 줬을까요? 솔로몬도 갈릴리를 가불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북쪽 변방 경계의 땅이었기 때문이고, 경계지역인 탓에 이방인들도 더러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산악 지대였고 막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놓친 것이 있어요. 갈릴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불같아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마음대로 이방인 왕에게 그 땅을 넘길 수도 없는 땅이었어 요. 레위기 25: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 요.

이 갈릴리를 히람 왕은 가불로 생각할 수 있었어 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약속의 땅으로 믿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했어 요. 그러면 가불의 땅이 언젠가는 보배로운 땅이 되거든요. 그것을 사9:1, 2절에서 말씀하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그러자 하나님이 “큰 빛과 큰 영광을 보게 하리라”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어 요. 가불 갈릴리가 보배의 땅이 되었어 요. 변방 갈릴 리가 중심이 되었어 요.

예수님도 이런 진리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가난해서 부잣집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농부가 있었어 요. 부잣집 주인은 그 농부에게 산비탈의 쓸모없는 밭, 버려둔 땅을 빌려줘요. 좋은 땅은 자기가 경작했죠. 그런데 하루는 그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요. 농부는 그 땅을 사고 싶어 서 대출도 받고, 돈 많 만한 것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맞춰서 겨우 사요.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이 버린 땅을 샀다고, 가불 땅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였던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71명의 사람들이었어 요. 이들은 위협적으로 베드로를 심문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두려워서 감히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재판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요. 베드로의 첫 마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느니라”(행4:10, 11)에 공회원들이 안연실색 당황해요.

이 말은 “나는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 가불처럼 취급하고 모욕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춧돌로 믿고, 너희가 가불처럼 여기고 멸시했던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믿는다” 선포하는 거였어 요.

그래서 베드로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에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 있는 귀한 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벧전 2:4, 6, 7, 새번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불”로 여겨지는 것들이 더욱 많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을 을 기억하여 우리의 눈에는 가불로 보일 지라도 우리를 향해 헛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소망을 품고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astoryuk@gmail.com

화목한 가정은 사명을 함께 나눈다

(2면에서 계속)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다(출20:9-10).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역시 가족 전체의 임무였다. 고넬리우스, 리디아,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는 사도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족에게 전했다. 그들의 가족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사명을 함께 나누었다. 누

가는 두로의 믿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행21:5).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번성함으로 세상을 채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상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나라에 대한 것을 삶과 행동으로 전하는 사명이다.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한 가족은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가족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가족이 돼야 한다.

사명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견고해지고, 가족에서 시작된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이 세상 전체로 전파할 수 있다.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하는가

현대 가족을 위한 하나의 접근법은 농장, 무역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금 하나의 생산단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활동 모습을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사명을 공유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 전체가 모여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N.D. 윌슨(N.D. Wilson)의 말을 인용하자면, 가족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시간은 풋볼 경기에서 다음 플레이를 하기 전에 쿼터백

을 중심으로 모여서 작전을 짜는 시간(huddle)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정원에서 무언가를 기르거나 손으로 유용한 무언가를 것을 만들기 △음식을 요리하기 △집안일 하기, 세차하고 잡초를 제거하기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하기 △나이 많은 이웃을 방문하기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고 동네일에 참여하기 △쉽거나 또는 선교 사역에 자원하기 △매주 함께 예배드리기 △교회

에서 가족의 이름을 봉사자 명단에 올리기

화목하고 친밀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엡3:15).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무슬림을 위한 연합 기도

2021년도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3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인 지난 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해를 중심으로

한 달력을 쓰지 않고 달을 중심으로 한 월력을 쓰기 때문에 일년이 35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라마단이 10일 정도 앞당겨 집니다. 올

해 라마단이 4월 13일부터 5월 12일이라면 내년에는 4월 3일에 시작해서 한 달간 진행될 것입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월력의 아홉 번째 달이고 이슬람력은 올해가 1442년이 됩니다. 라마단이란 의미는 아랍어로 타는 듯 한 더위와 건조함으로 금식의 의식이 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매년 라마단이 되면 성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해뜨기 전에 그날 필요한 음식을 지어 먹습니다. 저희도 처음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경에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식사 준비하라고 모든 집들을 돌면서 다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다수가 무슬림인 국가라서 모든 집을 친절하게 준비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지어먹고 나면 해가 뜨고 나서는 음식, 물과 담배는 물론, 침도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날의 해가 지고나면 다시 음식을 섭취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슬림 가정에는 라마단 때에 음식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새벽에 많이 먹어야만 하루를 견딜 수 있으며 밤에 하루 종일 굶었기에 폭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라마단 금식의 시작과 끝을 달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시간을 알려주고 각 마을의 무스크에서 확성기로 금식 시작과 해제 시간을 공포합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정부기관 기업, 학교의 시간이 오후 3시에 끝나고 각종 종교, 문화 예술행사가 열립니다. 저녁 식사 전

에는 움마 공동체별로 모여서 알꾸란을 암송하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때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저도 26년 선교사역 하는 동안 모든 불상사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제 돌쩌팔이 자동차 밑에 깔려 머리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제 아들이 지붕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약한 영들에게 기도할 때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족들에 대한 공격으로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현지 교회에 분란이 일고 서로 비난하고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때는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선교사를 보호하고 무슬림들이 어둠의

쇠사슬에 묶인 속박에서 풀어지고 참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지 속에서 회개할 의지도 없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가슴 치며 통곡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무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래전부터 라마단 기간 중에 이런 기도로 인하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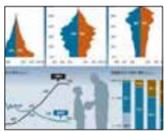
무슬림을 사랑하는 기도의 동행이 매년 더 많은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미주 한인교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쓰임 받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출산율·이민정책, 美 정치지형 흔들어

인구 변화가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다. 공화당 강세인 남부 '선벨트' 지역 인구가 증가해 선거인단 규모마저 달라지게 됐다. 미 언론은 "미국의 정치권력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출산율과 이민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주별 인구 변화는 이제 막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 있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지형이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인구조사국은 26일 미국 인구가 3억3145만명으로 10년 전 조사 때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수는 대선 선거인단 규모와 하원 의석(총435석) 배정을 결정한다.

외신들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주가 하원 2석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몬태나, 오클리 등 5개 주는 1석이 증가한다. 특히 텍사스는 1980년까지 26석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40석까지 늘어났다.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가 승자 중 승자"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의석수가 늘어난 6개 지역 중 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오클리,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7개 주는 하원 의석 1석씩을 빼앗기게 됐다. 민주당 강세인 캘리포니아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인구 증가율은 6.1%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뉴욕은 불과 89명 차이로 의석 1석을 잃게 됐다.

외신들은 공화당 강세인 남부 선벨트 인구 증가율이 민주당 우위인 북부 러스트벨트보다 높아 주별 분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대선이 새로운 선거인단 숫자로 재개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306표가 아닌 303표를 얻게 됐을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외신들은 미국의 출생률 감소와 이민 제한 정책이 인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각 주는 올 연말부터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거구 획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치른다.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이 내년 선거 대상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6석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7개 주 가운데 5곳에서 공화당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데 있다. WP는 "인구 이동이 민주당의 장기적 도전 과제"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인구는 10년 전보다 2270만여 명 늘었다. 증가율은 1980년 11.5%, 1990년 9.8%, 2000년 13.2%, 2010년 9.7%에서 7.4%로 감소했다. WP는 "미국은 강력한 이민 없이는 점점 더 일본, 독일, 이탈리아처럼 출산과 신규 유입이 인구 고령화를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연권대 백신은 짐승의 표 아니야'

미국의 대표적 보수 목회자인 그레그 로리(

사진) 하베스트크리스천 펠로우십 목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19 백신이(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지 묻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백신 음모론과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미국의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은 백신을 짐승의 표 또는 666이라면서 접종을 거부해왔다. 로리 목사는 세대주의 종말론 성향이 있는 목회자로서 이들의 주장과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는 "단연권대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 짐승의 표 또는 666을 받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며 "적그리스도 없는 짐승의 표는 있을 수 없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들러 올릴 때까지는 나타나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리 목사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7-8절을 인용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임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감람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개역개정)

그는 "데살로니가후서는 '지금 막는 자가 있는데 옮겨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며 그런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적그리스도인데 주 예수께서 광채로 그를 파괴하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그 표를 가지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 날아올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받았는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걱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이는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칸소주의회 "공립학교에 낙태단체 접근금지"

아칸소주의회가 산아제한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및 낙태 제공단체들이 공립학교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아칸소 학생 보호법(Arkansas Student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지난 19일 주 상원 투표에서 찬성 27대, 반대 5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도 73대 18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마크 로어리(Mark Lowery) 아칸소주 하원 의원(공화당)은 성명에서 "공립학교 또는 자유

입학제 차터 스쿨은 낙태 제공 기관과 어떤 형태의 거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학교가 법안을 위반할 시에는 주 위원회에 출석해 위반 사유를 제출하고 위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1592 하원 법안(House Bill 1592)은 아사 허친슨(Asa Hutchinson) 아칸소 주지사(공화당)에게 발송됐으며 서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허친슨 주지사가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투표의 과반수만 얻으면 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친생명 단체인 '아칸소가족협의회'의 제리 콕스(Jerry Cox) 회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주 낙태 단체들이 아칸소의 공립학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모계획 그레이트 플레인(Great Plains)' 지역 담당자인 글로리아 페드로(Gloria Pedro)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교육이 입법부의 잘못된 정치적 의제 때문에 위태롭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지난 3월 허친슨 주지사는 산모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 6호(Senate Bill 6)-'태어나지 않은 아동보호법'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허친슨은 법안이 강간이나 근친 상간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심) 검토 기회만 증가시킨다"며 "전폭적인 입법부의 지원과 나의 오랜 친생명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상원 법안 6호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美 항소법원 "신앙 의료인, 성전환수술 규정서 제외"

미국의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이 신앙적 배경을 가진 병원과 의사에게 선택적인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예외적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 3심 재판부는 '프란체스코 동맹 vs 자비에 베레카' 사건을 집중 검토했다. 쟁점은 프란체스코 동맹, 기독교 의료 및 치료 협회, 일리노이주 전문의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행정 규정이었다.

제5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의 이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보건부는 2016년 규정을 폐지하고, 2020년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에서 '성차별 금지'에 성 정체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이틀 7(Title 7)을 해석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지방법원은 보스톡의 논리를 '타이틀 9(Title 9)에 적용하여 2020년 규칙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2016년 규칙의 특정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성차별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에도 보스톡의 타이틀 7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전환 비용까지 의료보험비로 부담하도록 한 이 논쟁과 관련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는 "현재로서 상대적 장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종교 자유 사건을 성공적으로 벌려온 법률택체인 '루크 굤리치 오브 베크 로'(Luke Goodrich of Becket Law)는 트위터에 "이 사건의 원고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종교인 의사들과 병원"이라며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성전환' 절차가 해롭고 양심상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기며 순회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축하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고, 이 규정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종교적 반대가 있더라도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수행해야 했다.

이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교단체들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노스다코타의 지방법원 피터 웰트 판사가 '시스터 오브 메리' vs 아자르 사건에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웰트 판사는 "원고인 가톨릭 단체는 금지 명령의 영구적 예외 적용에 대한 자격을 입증했다. 종교자유회복법 위반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련 요인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연방법 해석에 연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피고에게 영구적으로 명령할 것"이라고 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특허권 포기 반대"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자사의 신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백신 특허권 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J&J), 노바백스 등 제약사들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백악관 관료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mRNA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mRNA 기술이 상용화된 건 이번 팬데믹 상황이 처음이다. mRNA 기술은 '회귀 혈전증' 부작용으로부터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과 심장병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앨버트 블라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잠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mRNA 기술 기반의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들에게 기술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논리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또 백신 제조사들은 생산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백신 생산 속도를 늦추는 건 특허 자체가 아닌 제조 병목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 증대를 위해 백신 기술 특허를 한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에 대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60여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백신 자국 우선주의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기술을 공개하자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 적잖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제약사들이 독점권 보호를 통해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0. 노진국(1889-1966)

노진국(盧眞國)은 1889년 9월 15일에 한국 이전 은순동에서 노YK와 한메리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이름 메리를 볼 때 당시 감리교회가 여자 교인에게 세례명을 주었으므로 노진국과 그의 부모가 감리교인이었던 것 같다. 고향에서 함께 살던 외삼촌 30세 한치춘과 26세 외숙모 그리고 3세 외사촌 동생 한봉영과 함께 노진국은 1905년 4월 27일에 일본 교베에서 시베리아 선박을 타 다음 달 8일에 호놀룰루(호항)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그는 데이빗(David Chin Kook Ro)으로 통했다.

노진국의 이름은 1913년 10월 17일자 신한민보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그 해에 로스앤젤레스(나성)에서 소학교 7학년이 재학하고 있었다. 당시 나성에는 여러 한인 학생이 있었다. 나성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민찬호가 대학문학과 3학년, 김관유가 의학과 1학년, 이광윤이 공학과 1학년, 조병진이 중학측량과 4학년, 정윤교가 공업과 3학년, 박진섭이 공업과 3학년, 이 건영이 공업과 1학년, 채한흥이 종교학원 중학교 1학년, 김경순이 여자소학교 8학년, 이태봉이 소학교 7학년, 정영도가 소학교 5학년, 이경복이 소학교 3학년, 이태복이 소학교 2학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안필립이 소학교 2학년, 송메리가 여자소학교 2학년, 송메나가 여자소학교 1학년, 전장 손이 소학교 1학년이었다.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섬기던 방화중 전도사가 본 교회의 소천 소식을 듣고 1912년 2월 초에 귀국하자 민찬호 전도사가 본 교회 목회자가 된다. 민찬호 전도사는 하와이에서 교회를 돕다가 신학공부를 할 목적으로 1911년 3월에 나성에 정착했고, 나성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성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시무하였는데 방화중의 귀국으로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민찬호 전도사가 나성한인장로교회에 부임하면서 나성한인감리교회 교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사실상 교회 모임이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노진국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나성에 한인교회로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나성한인장로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노진국은 1916년 2월에 나성에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9학년이다. 신한민보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나성에서 공부하던 한인학생은 총 28명이었다. 대학생이 3명이고, 중학생은 10명이었으며, 소학생은 10명, 유치원생 2명 그리고 미션 전문학교, 기독교청년회 특별과, 신학교에 각각 1명이었



나성 한인 장로교회

다. 그해 6월에 노진국이 유년하기강습소에 50센트를 기부한 것으로 보아 유학생 처지에 돈이

아쉬웠을 텐데 어린이 한국어교육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917년 6월에 노진국은 남가주대학 부속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당시 나성에서 공부하는 한인유학생이 총 18명이었지만 남가주대학 부속중학교에서 공부하던 자는 노진국 한 사람뿐이었다. 그해 10월에는 노진국이 신한민보사 가족제 보상으로 1달러를 기부했다.

1918년 6월에 노진국이 나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해에 미국 전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한인학생은 정매리엔, 문뜨라티, 임보비, 김경순, 김누디, 정등염, 채한흥, 노신호, 조정환 등 9명이었고, 그를 포함하면 10명이 되었다. 그해 대학교 졸업생이 9명, 소학교 졸업생이 7명이었으며 총 26명이었다. 그달 21일 저녁 8시에 나성에서 졸업한 대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소학생 6명을 위하여 나성지방회, 나성한인장로교회, 흥사단, 부인

진대회, 청년회, 학생회 등이 연합으로 나성한인장로교회 예배당에서 식당을 꾸미고 졸업생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진국은 채한흥과 함께 중학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였다.

그날 축하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일동이 애국가 1, 2절을 부른 후 한인복음전도회 목사 한승곤이 기도하고, 지방회장 이영수가 취지를 설명하고, 박리근과 강영각이 '표도가'를 부른 후 나성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민찬호가 축사를 했으며, 강영각이 나팔을 연주하고, 소학졸업생 윤계은과 중학졸업생 노진국과 채한흥이 졸업생 답사를 했으며, 강영각의 품극에 따라 한창호가 "도덕을 배우고"를 불렀으며, 여학생 김경순과 중학교 졸업생 정등염과 대학교 졸업생 김관유가 각각 졸업생 답사를 하였으며, 강영각이 나팔을 연주하고, 지방회 학무원 한승곤 목사가 상품을 수여하였으며, 졸업생들이 애국가 3절과 4절을 부른 후 다과회가 있었다.

오하이오 아크론한인장로교회

나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노진국은 오하이오주 아크론으로 이주했다. 이듬해 1919년 1월 1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하이오주 아크론 지방회가 처음 조직될 때 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날 선출된 다른 임원은 부회장에 박옥, 총무 조월림, 서기 강영문, 재무 황보절걸, 학무 사병순, 법무 최능익, 구제원 하회옥, 대의원 박인택, 실업부원 강영상이었다. 학무 사병순이 한국 장로교회가 최초로 중국 산둥에 파송한 해외선교사였으므로 사 목

나성, 아크론 거쳐 다시 나성에서 한인장로교회 영수로 사역 기독교학원 초청으로 하와이로 이주 한인기독교교회 전도사 사역

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본다.

노진국의 나라사랑은 아크론 지방회 조직에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총회장의 전보를 통해 그해 3월 1일에 서울에서 대한독립 선교 소식을 듣고 지방회 회원 모두가 크게 기뻐서 뛰며 그가 중심이 되어 우선 아크론 지방회원이 "앞길을 진행하여 나갈 데 관하여 일심동력하기로" 결의하는데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그는 그해 3월과 4월과 5월에 특별한 연금, 국민의무금, 독립의연금, 필라델피아 자유대회의연금을 기쁘게 낼 수 있었다.

나성한인장로교회 영수

노진국은 아크론에서 나성으로 돌아왔다. 나성지방회 임원이 총 사면을 하면서 1919년 7월 27일에 새 임원을 선정할 때 그는 총무로 선임되었다.

기타 임원으로서는 회장 전 진, 부회장 민찬호 전도사, 학무 박재형, 서기 김학수, 재무 박리근, 실업원 김희복, 법무원 전 진이었다.

1919년에 나성에는 한인동포 100여 명이 있었다.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장년 교우가 40여 명에 이르렀고 예배당은 이전보다 일층 더 편리하게 설비되었으며 장차 교회에 소망이 있었다. 민찬호 전도사가 1919년에 하와이로 돌아가면서 흥치범 전도사가 본 교회를 돕게 되었다. 흥 전도사는 증가주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감리교회를 돕던 순회 전도사였다.

이런 가운데 1919년 11월에 노진국은 박일우와 염세우와 더불어 영수로 선임되었다. 영수는 흥치범 순회 전도사가 다른 지역 교회를 순회할 때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목회전반을 담당했으므로 노진국은 박일우와 염세우와 더불어 교회 목회를 담당했다고 본다. 본 교회에 집사와 권찰도 있었다. 집사에는 정인영, 정지영, 염달욱, 조성환, 주영한, 전 진 등 6명이었고, 권찰에 김이선, 박순애, 임화연 등 3명이 있었다.

1920년 3월 1일 오전 10시에 독립선언 기념경축회가 있었다. 흥치범 전도사의 개최에 이어 일동이 일어나 경축가를 합창한 후 노진국이 개회기도를 담당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그 후 흥치범 전도사의 개회사, 주영한의 대대령 교령 낭독, 조성환의 독립선언서 낭독, 일동 국기경례, 독립 기립만세 제창, 박순애 부인과 황미녀 여사의 병창, 염세우 영수의 임시정부 헌법낭독, 열달

안레리오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한부인애국단 회원이었다. 그해 9월 18일에 노진국은 호항 기독교학원의 초빙을 받고 부인과 함께 롤린 선편으로 그해 10월 2일에 상항에서 하와이로 향했다.

노진국의 나성한인장로교회 영수직은 1919년 7월 27일부터 하와이로 이주하던 1920년 9월 18일까지 1년 2개월간이다.

하와이 한인기독교교회 전도사

노진국은 부인과 함께 1920년 10월 2일에 상항을 떠나 그달 9일에 하와이 호항에 도착했다. 그와 부인은 선박방면에 교사라고 밝혔. 그달에 그는 하와이 한인기독교교회 교장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3년 7월 하와이 감리교 한인부가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노진국은 재무에 선임되어 위임장 김이제, 서기 이원순, 위원 이태성, 염달욱, 최창덕, 현 순 등과 동역했다. 그해 10월 25일 저녁에 호항 밀러 스트리트에서 한인 500명이 대회를 열고 일본 지진 때에 학살당한 동포조사위원회를 설립할 때 노진국은 박 준, 양유찬, 이태성, 김영기와 함께 선출되어 재일동포를 위하여 팔을 걷어붙였고, 1924년 1월에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노진국은 1924년 1월에 한인기독교교회 연찬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고 곧 지역 교회로 파송될 예정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찾지 못한 듯하다.

노진국은 장 봉, 최창덕 그리고 임영우와 함께 1925년 10월에 이듬해 하와이 교민단 단장 몰팡사 명단에 오를 만큼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공인이 되었고, 여느 재미한인과 같이 1930년에 와히아에서 세탁소 지배인으로 활동했고, 1940년에는 같은 곳에서 양복점을 운영했다.

1942년 4월 26일에 제출한 세계 제 2차 대전 징병 서류에 따르면 노진국이 은퇴하여 와히아와 마쿠웨오 애비뉴 64번지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인상착의에 따르면 5피트 5인치의 키에 120파운드 체중으로 갈색 눈에 검정머리 그리고 연갈색 얼굴이었다. 아내를 사별한 지 14년이 되고, 아들 리차드가 별세한 지 3년이 되던 1966년 5월 23일에 그는 향년 76세로 하와이 호놀룰루 와히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와 아들이 누운 이곳 누아누 기립 공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3 style="text-align: center;">서부(CA)교회안내</h3>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금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 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714) 646-9259,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 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 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찬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849) 854-4010 / beth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6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사목) (영-금) 오전 10:00-오후 4:00PM 사역대상 1. 여성사역 2. 교회 평신도 매진센터 3. 가정사역 4. 다문화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끼기도시간: 365일 24시간 오전 Tel: (714) 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8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Western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 배: 오전 9:45(1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310) 924-3340, pimmi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인양자세'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6)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III. 백스터의 사상과 강조점
1. "개혁신앙 목회자"가 강조하는 우선성
백스터의 교회개혁의 목표는 목회사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목회사역의 두 가지 핵심 목적은 모든 목회사역에 있어서 회심을 강조하는 것과 이를 위해 모든 가족에게 교리문답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구교인 개인과 가정이 자기 나름대로 훈련된 경건의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것이 "개혁신앙 목회자"의 문학적 기원이자 신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백스터는 참된 개혁이 구조의 변화보다 회심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실현하려면 교리문답교육, 권징 그리고 목사 간외의 연합,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임을 확신했다. 국가교회가 사실상 사라지고 고정된 교회체계가 없어지자 그의 개혁을 향한 지치지 않는 노력이 결실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개혁신앙 목회자"는 우연히 탄생한 작품이

아니라 1650년대에 그의 개혁에 대한 우선권과 관점의 결정체로 저술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2. "개혁신앙 목회자"에서 참된 개혁을 위한 요소
이 책에서 그는 성실한 설명과 엄격한 주석에 따라 성경적인 장로주의의 본질과 범주, 양떼들의 관리에 대한 본질과 태도와 동기, 교리문답교육과 목회적 권징의 특별한 중요성, 장로에게 "개혁신앙 목회자"의 길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지침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목사직의 본질과 목사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다루면서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구교인들에게도 청교도의 경건, 곧 경건의 윤곽과 우선성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혁신앙 목회자"는 우리 각자의 잘못된 성향을 고치는 데 큰 도

움과 주교, 복음의 결정체 곧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전을 준다.
또한 교리문답교육에 대한 강조는 친교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실상뿐만 아니라 친교 속에서 우리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실상도 보여준다. 그는 교리문답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개혁의 대상이 먼저 목자들이 되어 권징의 확립과 교회의 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교리문답교육을 시키는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에 목회자 자신이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이 "개혁신앙 목회자"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개혁의 이상과 목사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

백스터 목회사역은 회심과 가족 교리문답교육에 치중
참된 개혁은 교리문답교육, 권징, 목사연합으로 생각

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개혁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비성경적인 신앙적 요소의 청산을 신속히 요구하며 영국교회의 개혁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 장기 의회 기간(Long Parliament, 1640-1660)에 청교도들은 결국 목사들이 지지하고 시민 권력에 의해 시행된 행정개혁의 대성공을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성직주의를 반대하는 운동과 많은 분파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서 그는 다른 많은 청교도와 마찬가지로 개혁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마치 2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일이 전개되었다. 하나는 윌리엄 로드 대주교(1573-1645)의 감독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교 논쟁자인 토마스 에드워즈가 급진분리파의 '루페의 근원'이라고 불렀던 세력이었다.
후자에 대하여 백스터는 신모범군에서 군목으로 활동할

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온전한 사람의 천국 길'에서 싸우며 부지런히 달려가자 하고, 패락주의적인 일상과 안일을 추구하는 게으른 주교와 많은 교구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참된 교회 가 아니었다. 목사직을 거부하는 급진적인 반 성직주의사상을 가진 웨이커교도들이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교제(Society of Friends)'로만 구성된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는 관찰구역이 전체교구가 되고 목사가 사실상 회중의 주교 곧 제일차적 임무가 양 떼를 치는 일에 있는 감독이 되는 연약공동체였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2가지 유익을 전할 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간도구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면 각 성되고 개혁된 목회사역이 먼

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3. 교리문답교육으로서의 목회
이안 그린(Ian Green)은 1996년 자신의 책 "기독교의 ABC: 영국에서의 교리문답" (1530-1740)에서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교리문답교육이 광범하게 실시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이 점을 백스터가 미친 공헌을 크게 강조했다. 그가 교리문답교육을 강조하는 한 가지 독특한 요인은 교리문답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와 나이에 관련되어 있다. 그는 회심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회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공

적인 설교가 아니라 교리문답의 형식으로 개인적 대화를 나누어보는데 있다고 확신했다.
1) 목회효과와 핵심 요소
백스터는 교리문답교육을 가시적으로 목회효과를 나타내는 핵심요소의 하나로 믿고 "그때까지 내가 시도해본 모든 사역 가운데 교리문답교육을 실천할 때 나타난 결과가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리문답교육을 시행하기 전에는 단지 교회에서만 성도들에게 교리문답교육을 실시했고 그것도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시했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교리문답교육을 참된 개혁을 이루는 필수수단으로 인식한 후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더 빈번하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교구 각 가정에 대해 교리문답교육을 실시했다.
(10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분리 불안

지난 이월이 한국에 있는 조카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영리하고 예민한 아이인데 정든 유치원을 떠나 친구도 선생님도 낯선 새로운 초등학교로 가게 되면서 몇 주간 몹쓸 울며 힘들어 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집에 와서는 자기 방 문 앞에 "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라고 쪽지를 써 붙여 놓았다고 언니가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귀엽기도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안 되어 힘들어 하는 꼬마를 위해 멀리 미국에 있는 이모할머니나 나까지 한동안 기도를 했다. 한 달 남짓 지나서 잘 극복하고 "학교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네" 라고 하며 요즘에는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 개인이 강한 애착을 지닌 사람이나 환경에 분리될 때 느끼는 불안을 '분리 불안(separation anxiety)'이라고 한다. 분리 불안이 심한 경우는 분리불안장애로 구분된다. 어린 아이가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낮가림이 아마도 성장과정 중에 처음 겪는 분리불안 현상의 시작일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함께 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안정감의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분리불안은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죄의 결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존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모든 안전과 행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야했던 인류의 조상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었을 것 같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보다 더 큰 불안함이 어디 있겠나. 김명봉 목사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철저하게 동의가 된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분리를 경험하셨다. 셋째마리의 기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던 고통의 극치를 보여준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스스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마26:28)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히5:7)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스럽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셨던 것은 아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셔야 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다. 셋째마리 동산의 기도는 죄로 인한 분리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몸부림이었다.
지난겨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간호할 때 조금이나마 죄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철저히 격리지침을 따르고 흑시라도 감염이 될까 싶어 마치 나병환자 다루듯이 곁에 오지도, 가지도 못했다. 아파서 고생하는 딸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도 전화로 기도를 해줄 뿐 손도 잡아줄 수 없었다. 아무리 사랑해도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격리해야만 한 것이다. 더러운 죄를 지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향한 내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고통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서름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금요찬양: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집합: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친교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 (화-토) 금요기도회: 평일 7:00, 화, 목, 금요일 7:30 금요찬양 및 기도: 매월 둘째 주 오후 7:3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빈천대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목회서신

위로의 삶

성도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삶'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슬픔의 눈물을 흐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기 전의 기록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되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

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백신을 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을 지었음지라도 용서하여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노역의 삶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v.2상).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노역의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된 노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들의 죄를 용서하여주시고, 그들이 당한 징벌을 거두어주시고, 고통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끝내야 끝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이 사람을 받았고, 징벌을 거두어 주시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치며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포로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억압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시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모른 채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상하여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멍에에 얽매어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yosupbois@hotmail.com



미주성결교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새 총회장 윤석형 목사 선출

미주성결교회 제 42회 총회, 부총회장 이대우 목사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동욱 목사) 제 42회 총회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렘29:11-13)'라는 주제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쉼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산생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윤석형 목사가 선출됐다. 윤석형 신임 총회장은 "부족한 자에게 귀한 직무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7가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회장의 제시한 비전은 △첫째, 교단이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10년 내 2세 목회자들을 100명 이상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고민해 보겠다. △둘째, 우리 교단은 선교중심의 교단인데, 꺼져가는 선교 불씨와 열정을 살리며,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홍보로 개교회를 격려하는 총회가 되겠다. △셋째, 한국과 미주 성결교단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교단적으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총회의 행정적인 미진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교단 장학금으로 모아진 돈이 16만불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금액을 늘려가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여섯째, 미주에서 목회하시다 홀로 남은 사모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찾아 만나고 그들을 위해총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겠다. △일곱째, 미주에서 목회하다가 나간 목회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만나 네트워킹을 만들고, 한국교단과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등이다.

윤 회장은 "총회를 위해 그리고 총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며 "교단의 각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3시(서부시간)에 있었던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윤석형 목사의 사회로 장로 부총회장 김장원 장로의 기도, 서기 안충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서 총회장 김동욱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요

3:16-21)'라는 설교가 있는 후 전 총회장 김용배 목사의 성찬 집례와 총무인 이홍근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전 총회장 김광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순서로 한해 동안 수고한 13명의 지방회장에게 수고에 감사하며 표창을 했으며, 교회개혁 공로패를 북가주지방회 트래이시제일교회 정승구 목사에게 전달하고, 4명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축사는 기독교대한성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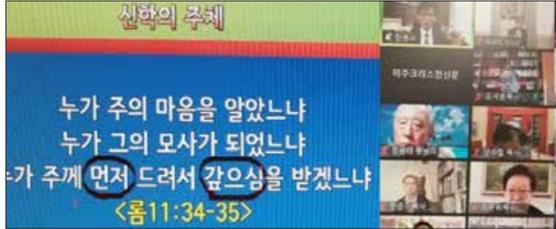
교회 총회장 한기재 목사와 밥페더린 OMS 총재, 대니 비즐리 OMS 부총재, 웨인 슈밋 웨슬리안 재단 총재가 화상으로 축사했다.

또한 캐나다지방회의 배성연 목사, 동남지방회의 이주일 목사, 워싱턴 지방회의 조충현 목사, 북가주 지방회의 김진석 목사, LA 지방회의 이병여 목사 등 5명의 신입회원들이 소개됐다.

둘째 날(20일)에는 임원선거와 5명의 목사안수식과 6명의 교단파송 선교사 인준이 진행됐다.

다음은 제42회 총회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윤석형 목사(산생교회) △부총회장 이대우 목사(필라한빛교회) △장로 부총회장 송상례 장로(워싱턴한인교회) △서기 이정찬 목사(캐네티컷믿음교회) △부서기 이정석 목사(면류관교회) △회계 김성훈 장로(유니온교회) △부회계 최은호 장로(연합선교회). (정리: 박준호 기자)



KAPC 목회와 신학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경해석 연구(고전)" "개혁주의 사상의 뿌리"

KAPC 목회와 신학포럼, 강사 한병수 정성국 교수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상임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선중 목사)가 주관한 제 4차 목회와 신학 포럼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쉼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사경부흥회와 같은 뜨거움이 넘쳐나는 평을 받았으며 강의 후 질문이 이어졌다.

강사는 한국 개혁주의 대표 신학자인 한병수 교수(전주대

학교 기초융합대학원 교수)와 정성국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신약학 교수)가 맡았다.

일정은 △19일 오후 7시-9시, 20일 9시30분-11시30분, 정성국 교수가 "성경해석 연구: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20일 오후 7-9시, 21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한병수 교수가 "개혁주의 사상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각각 두 번의 강의를 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

답 시간이 진행됐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작년에 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며 포럼개최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총회 상임교육연구위원회에서 최근 발행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소개했다.

이 책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외 텍스트 공역협약을 한 OPC 교단의 공식 텍스트를 사용해 한국어와 영어로 33장, 302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기본적으로 1788년 미국 버전을 기초로 하고 있고 논란이 있는 이후 1903년 버전은 수용하지 않았다. 원판은 1647년판이며, 수정판은 1788년판 혹은 1903년판이 있다.

2,000부를 출판했으며 정가는 20달러(6월말까지 15달러)로 동부지역은 윈즈장로교회에서, 서부는 글렌데일그레이스 교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총무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3면에서 계속)

또한, 공식 교회 통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백한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가톨릭 간행물인 교회 통계연감을 살펴보면 미국의 가톨릭 결혼은 1965년 이래 10개의 장례식마다 9개의 결혼식이 있었으며, 59%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0대 3.7로 감소했다. 평균연령이 40세 미만인 젊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는 한, 참석해야 할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요인 중 하나는 안데르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부부가 서로 더 헌신할수록 의심은 줄어들며, 특히 재정과 관련된 경우에 그러하다.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으로 함께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전4:9-12).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은 더는 이런 식으로 결혼을 인식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국가를 불분하고 물질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불확실성을 종식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만난 29세의 정통 기독교인 빅터를 포함해 인터뷰에 응한 많은 사람에게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을 갖고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내가 불안정하거나 불행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할까? 작고 후진 집에 살 수 있을까? 현대 대도시의 상황에서 가족을

만든다면 여러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라고 빅터가 말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전염병이 어떻게 퍼졌는지에 관한 것은 성 혁명, 축소된 경제 또는 표준 이하의 남성 등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 아니다. 반면, 결혼생활에서 얻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크게 바뀌었다.

결혼은 대부분의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이제 성인이 되는 기본적인 관문이 아닌 성공적인 삶을 증명하는 하나의 주춧돌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물을 마무리하려면 주춧돌이 필요한데, 결혼이 바로 그 단계인 것이다. 그러나 기초가 있어야 건물이 세워지며, 이 과정에서 마모는

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죠"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이 관점으로 본다면 결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자기희생은 30번째 생일 즈음에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선물 아닌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혼제도의 위기는 발전된 서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스 출신의 28세 미혼 오순절교인 디디는 분명한 결혼조건을 갖고 있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라고 그녀가 말했다. "제가 목표한 모든 것을 성취한 다음 결혼을 할 거예요." 라고스 출신의 또 다른 24세 미혼 여성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 제발! 결혼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크라쿠프의 이 부부는 여러 방법으로 현실과 맞서 싸웠다. 마르타는 결혼식이 온 동네 사람들의 축제로 여겨지는 작은 마을 출신인데,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하기로 결정해 돈을 절약했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유대를 시험당하기도 했다. 파웨는 "우리가 큰 피로연을 열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울랐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웨 부부는 친구와 이웃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결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했다.

그들에게 결혼이 이전과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마르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20-30년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결혼은 위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제 가족과 부모 때를 생

고 우리는 관행으로 남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특권층만이 선택하는 자발적이며 소비지향적인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결혼을 통한 이점은 두 사람의 부와 소득을 통합한다는 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경제적 도움이 못 되는 경우 단점이 되기도 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을 통해 사회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할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는 아니며 강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은 결혼을 늦게 할수록 결혼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마르타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 결혼할 것이며,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혼율이 줄거나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기다리기 지쳤다"라는 말을 자매들에게서 자주 듣는다. 대부분의 성도 중에는 결혼에 관심이 있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추세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들은 능력이 적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며, 그 힘은 섹스를 포함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많은 크리스천 자매들에게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은 그들을 이중적 고민에 빠지게 한다. 결혼을 약속할 만한 상대와 혼전에 잠자리를 가져도 될까? 아니면 혼전순결을 지키고 그가 날 떠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결혼: 일부 특권층만 선택하는 자발적 소비지향적 행위로 인식 늦게 할수록 결혼할 확률 줄어 들어

우리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와 희생에 대한 낮은 관용을 나타냈다.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들은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야기에 주저했지만, 실은 이를 갈망하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따르지 않은 한 부부는 미래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현재 연구 중인 폴란드인 가족의 사례가 그 대표적 예다. 24세 파웨와 29세 마르타는 현재 크라쿠프에 거주하는 부부다. 마르타는 한 살짜리 딸을 키우는 주부이며 파웨는 인근 대학의 철학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다른 사

각해보면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이도 시작했죠."

그녀와 파웨는 현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며 기본적인 관점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이 함께하는 삶은 쉽지 않지만, 주변의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창조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결혼은 현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들과 같은 현실적이고 기본에 충실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다음단계로 접근하는 부부가 많지는 않았다. 결혼은 점점 더 사람들이에게 인기가 없어지고, 더 이상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각해보면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이도 시작했죠."

그녀와 파웨는 현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며 기본적인 관점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이 함께하는 삶은 쉽지 않지만, 주변의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창조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결혼은 현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들과 같은 현실적이고 기본에 충실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다음단계로 접근하는 부부가 많지는 않았다. 결혼은 점점 더 사람들이에게 인기가 없어지고, 더 이상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미주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제1회 특별 생활수기 공모전'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뉴욕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제1회 특별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이며 △응모부문은 시 최소 2편(연당 A4 용지 2매 이내), 시조 최소 2편(연당 A4 용지 2매 이내), 수필 최소 1편(연당 A4 용지 4매 이내), 신앙 간증 최소 1편(A4 용지 4매 이내). 모두 한글에 한하며 미발표작. △응모 자격은 뉴욕거주 한인으로 각 부문 우수상 1명, 가작 1명(각 부문 트로피와 소정의 상품 증정 및 수상작품 한국일보 게재) △응모마감: 5월 20일(목) 오후 5시. 당선자 발표는 6월 20일 예정. 작품 전면에 출판 부문과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함께 첨부해야한다. 보낼 곳: nyckcg@gmail.com
▲문의: (718)279-1414

"엄마와 함께하는 Kidz HMMS"

낮은올다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 www.wooltar-us.org)가 주최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Kidz HMMS(어린이회복학교)"가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미동부시간) 7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1-6학년. 엄마(혹은 아빠)와 함께 참여한다. 5월 6일(목) 저녁 7시30분-9시 부모를 위한 사전 세미나가 진행된다. 등록비는 60달러(둘째와 셋째는 40달러, 엄마 아빠는 등록비 없음) 등록하기: <https://forms.gle/D5JgXrp3HBNCKyVc8>
▲문의: (646)300-4790

제2기 프레션 선교학교

프레션이 주최하고 미션파트너스(MP)USA가 주관하는 제2기 프레션 선교학교(Prassion School of Mission)가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밤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와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선교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 동역적 관점을 배우게 되고 '학습공동체'를 통해 선교적 성경읽기 실습을 하게 되며 '선교독서클럽'을 시작하는 법과 '이주민을 친구로 삼는 일' 등 선교적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고 배우게 된다. 선교훈련 후 참가자 중 지원자들은 6주간 '프렌드십 퍼스트' 무슬림 선교 훈련과 8주간 실시되는 온라인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단기 선교는 이슬람 국가인 A국 현지인들에게 Zoom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며 친구가 되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참가비 20달러.
▲문의: (703)863-5187 한창훈 목사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을 통해 훈련된 18명의 현지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되고 있다.

"Beyond Korean Diaspora!" ,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 설립예배 및 선교사 파송예배

지난 4월 17일 오전 9시(미동부 시간)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 설립예배 및 선교사 파송예배가 미국과 라이베리아 연결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호성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미국에 온 어니스트 쉰아 한 사람을 통해서 Brian J Knightly 학교가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이 되고, 라이베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서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체에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길 믿는다"라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눴다.

라이베리아 현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고, 미국에서 50여 명이 이상이 줌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예배는 PGM 선교회를 통해 "Beyond Korean Diaspora!"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은혜롭게 진행됐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이 아프리카 현지 찬양에 맞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목도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라이베리아 현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Brian J Knightly 교장이자 PGM 선교사인 어니스트 쉰아 선교사의 개회기도, PGM 정책 이사인 이상현 목사(달리한인장로교회 담임)의 환영사, 결연 아동들의 특송, PGM국제대표 호성기 목사의 설교, PGM 선교사(Paygar Gargar, Kebeh M. Suah, Ernest Harris Suah, Ernestine Gaye) 파송식 및 선교훈련원 설립선교 이후 양촌 언 목사(Antioch Spanish

Church)가 기도했다. 이어 2년간 훈련 받은 18명의 현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호성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은 라이베리아에 위치한 3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Brian J Knightley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 온 어니스트 쉰아 교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쉰아 선교사는 팔레방에서 만난 필라 안디옥교회 스페니시 성도를 통해 필라 안디옥교회에 출석하게 됐으며 PGM 선교훈련을 받고 PGM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어니스트 쉰아 선교사는 PGM 선교회와 협력해 Brian J Knightley 학교 교사 전원에게 지난 2년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지속적인 PGM 선교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라이베리아 현지인들의 선교훈련이 절실히 필요하게 돼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을 설립하게 됐다.

PGM 선교훈련원은 선교의 현지화를 위해 유무형의 형태로 세워지고 있다. 2018년 동아시아 선교훈련원이 세워진 이후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유럽과 중동중앙 아시아, 중남미 등 비전이 확장되기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의 판도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변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PGM 서아프리카 선교훈련원을 통해 라이베리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선교의 제4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사제공: PGM)

평등법 반대서명 참여 독려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 회계보고, 행사계획 등 발표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23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제2차 임실행위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반대서명 설명회와 행사 계획 및 회계보고 등 업무보고를 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회의에 앞서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 도 목회자의 존재이유는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연합 사업을 최대한 해나가려고 한다.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김홍석 목사 인도 기도 전회수 목사, 성경봉독 이준범 목사(이사장), 설교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담임), 합심(통성)기도, 축도 황동의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25-37)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종교 순수성을 지켰으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인종혼합정책으로 인해 순수성을 잃어버려 유대인들의 무시를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마리아를 강조하시고 새로운 나라의 가치관을 제시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목사안수 40년 동안 바리새인만 만드는데 집중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자"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코로나19기 속에서 어려운 목회자들과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하여/임영건 목사 △성경말씀에 반하는 소위 평등법 지지를 위하여/박마이 목사 △교협의 사역과 행사를 위하여/박진하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무는 문석호 목사 사회로 박이스라엘 목사 개회기도 후 회장인사, 회원점명, 업무보고, 감사보고(김기호 목사), 회계보고(안경순 목사), 안건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계는 2020년 10월 총회부

기독교평서로의...

(8면에서 계속)

그는 목회사역을 통해 교회에 대한 지식과 실천, 교회의 지체 의식과 연합과 순결함, 그리고 목사와 교구민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대부분의 노력을 쏟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백스터의 보조목사였던 리처드 사전트는 교구교인들의 가정에 '협약'의 사본을 배부하였는데, 그 '협약'에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백스터 자신에 의해 영적으로 표현된 정통주의의 3대 표지, 그리고 열두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압축되어 요약교리문답(Westminster 소요리문답보다 더 간단)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6주에 걸친 공부를 하고 나면 백스터와 리처드 사전트는 개인적인 가족 교리문답공부를 시작했다.

백스터는 월요일 화요일마다 가족들을 불러 한 가족에 한 시간씩 공부를 시켰고, 사전트는 같은 날 교구교인들의 가정을 찾아가 공부를 시켰다. 그가 교리문답교육을 필수적인 목회요소를 보았던 이유는 그것이 영혼들의 회심을 위한 가장 유익한 수단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회심한 사람들의 올바른 성장을 촉진시키며, 둘째 공적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셋째 성례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다.
hyojungyo2@yahoo.com

터 2021년 4월 19일까지 이월 금 12,187.32달러, 수입 115,074.17달러, 지출 95,583.48달러, 잔액 31,678.01달러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신년하례회 잔액 11,321달러, 부활절 잔액 2,657달러, 교협건물 남은 모기지 44,542.15달러, 주소록 광고수입 30,650달러로 보고했다.

교협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청소년 설교대회: 5월 16일 오후 5시 뉴욕호신장로교회 △다민족(홀리스)복음전도대회: 6월중 △청소년 선교지 탐방(멕시코): 8월중 △목회자 위로 행사: 5월 3일 △희망 음악회(이사회 주관): 5월 23일 오후 5시 뉴욕호신장로교회.

이어서 평등법 반대서명에 대해 이상열 목사가 발표했다. 유 목사는 "평등법은 한마디로 성(젠더)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윤리적 혼란도 문제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반대 이유는 첫째로, 성전환이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죄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불법이 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공평'과 '평등'을 섞어 말하고 '구별'과 '차별'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목사는 "비록 정치적 입장과 신학적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평등법을 반대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며 온라인서명 링크(<https://p2a.co/BN6BJTC>)를 안내했다.

또 현영갑 목사가 총회 때 고발한 부정선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문석호 목사는 3회에 걸쳐 임원회를 가졌다고 답하고 차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재홍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60회기 총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사합격증 수여, 강도사 인허식 등

예장(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60회기 총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미주동부노회 제 60회기 총회 정기노회가 지난 25일 저녁 4시 뉴욕 사자교회(담임 이창남 목사)에서 열렸다.

대면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1부 예배는 부노회장 신우철 목사 인도로 기도 장규준 목사(서기), 설교 김충전 목사(노회장), 목사합격증 수여(이종진), 강도사 인허식(이대은, 백경희), 감사기도 한기철 목사(회계), 축도 송원섭 목사(증경노회장) 순서로 열렸다.

김충전 목사(브라운스빌열린문교회 담임)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 교회와 목회에서 목회를 잘하려면 영성, 지성, 인성이 풍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인성은 자기성찰"이라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관계에서 좌우로 치우쳐 버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목양할 대상을 품고 언약의 관계를 이루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도전했다.

예배 후에는 합성은 목사(증경노회장)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됐다.

2부 회무처리는 노회장 김충전 목사 사회로 흥지철 목사 기도 후 진행됐다.

△목사 합격증을 받은 이종진 강도사(뉴욕만백성교회) 목사안수 청원 △강도사로 인허 받은 이대은(뉴욕선민교회) 백경희(애들란타 경서교회) 강도사의 노회 가입과 목사고시 청

원을 처리했다. 또 △신병용 전도사(민음으로서는교회, ATS) 교단가입, 김호중 전도사 교단 가입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기 보고에서는 △주요목사 목사의 노회탈퇴사 접수 △김베드로 목사(가스펠장로교회 부목사)와 김종욱 목사(캐나다 토론토)에게 교단가입 관련 서류 발송 △가스펠장로교회(신우철 목사) 2명의 피택 장로(루이스와 노기만) 장로고시 청원을 다뤘다.

송원섭 목사가 올린 현의안 △노회세칙 제 5조 고시과목 조정의 건은 통과됐으며 △한교회 부부목사의 경우 노회비 1인 납부(김드보라 목사의 현의안)는 1인 회비는 노회 후원으로 결의했다. △총회(한국) 참석하는 총대들의 경비 지원금 삭제(김충전 목사의 현의안)는 부결됐으며 △순회원 제 2 폐지(임원회 현의안)는 회칙수정을 먼저 하기로 했다. 또 △신병용 전도사(민음으로서는교회) 임원회(현의안)는 임원과 증경노회장이 함께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김동욱 목사가 현의안 △이종명 목사 제명 처분 취소 및 사과 촉구 서한 발송건은 3월 29일자로 뉴욕교협 증경회장 단에게 발송했다.

회계보고는 수입 17,950달러, 지출 14,204달러, 잔액 3,745달러로 보고했다.

한편 김충전 노회장은 한국총회와 관련해 △임실행위 개최 시 위임장 발송 △여성 목사 임원되기 △WCCO에 가입된 적 없다 △총회파송 선교사가 되려면 내년 선교합숙훈련에 참여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진 기도회는 김경열 목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려움 당하신 목사님들을 위해 △코로나와 나라와 민족,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종명 목사(증경노회장)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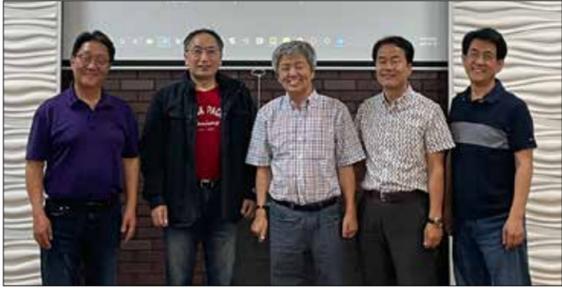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철학과 신학'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종교개혁은 위로부터...철학은 밑으로부터...”

아주사퍼시픽한인동문회 '철학과 신학' 세미나, 강사 박성민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철학과 신학' 세미나가 남가주새시대교회(담임 정중환 목사)에서 19일 오후 8시에 ZOOM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민 박사가 강사로 참여해 강의했다.

박성민 박사는 “종교개혁 이전 철학에서 데카르트를 생각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대표적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를 부정할 때 존재하는 존재가 진짜”라며 “모든 철학의 중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사느냐이며 이는 신론 인간론 윤리학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명제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냐의 문제까지 가게 되며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근대철학이 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학적으로 카톨릭에서 교조주의가 유럽을 뒤덮었다. 그 속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캠페인 쾰른 쾰빙글리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이뤄졌다”며 “종교개혁과 더불어 경험론과 인식론이 나오게 된다. 경험론은 신을 아는 것도 경험이 중요하다. 아는 것의 본질은 경험이라는 것이며 인식론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으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기간에 논쟁이 있다. 1517년부터 30년지나 아우구스부르크(독일) 협정이 맺어졌으며, 독일 안에서 신교와 구교가 서로 인정하지는 협정이 1558년에 맺어졌다. 종교개혁이 역사의 마지막은 1558년이다. 100년 더 지나가 1620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끝나며 이를 통해 개혁이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종교개혁은 위로부터 신학사상이며 철학은 밑으로부터 사상”이라며 “이 철학이 신학을 공격해오게 됐다. 모든 인간의 인식, 신을 알고 증명하려고 했으며 로크, 루소, 흄 등이 경험을 중요하다 했다. 독일중심사상은 이성을 중시하는 인식론이며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줬다. 계몽주의 사상은 모든 결론은 칸트에서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를 설명하며 “신학사상의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통주의이며 이는 카톨릭 체계속 루터, 칼빈, 쾰빙글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반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해 정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고 신호범 의원 추모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 은 하늘나라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고 신호범 의원 추모예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는 고 신호범 의원 추모예배를 4월 26일 오전 11시 재단사무실에서 가졌다.

조응규 전의원, 김태훈 목사(미주혁명본부 총회장)가 조사 증명하려고 했으며 로크, 루소, 흄 등이 경험을 중요하다 했다. 독일중심사상은 이성을 중시하는 인식론이며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줬다. 계몽주의 사상은 모든 결론은 칸트에서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영 박사는 “사도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하늘나라였다. 두 번째 관심은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있던지 주님 곁에 가던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며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으로 비유했다. 우리육체는 영원한 것이 못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장막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에 장막 집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관심은 장막 집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많다.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눌러 살지만 그러한 시간은 잠시뿐”이라 말했다.

그는 “고 신호범 의원은 4세 때 고아가 돼 미군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허드렛일을 했다. 그의 성실함이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었다”며 “그는 입양아라는 짐,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지만 바울처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 이민 1세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다음세대들이 미국사회에 뿌리내리고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궁극적 관심이었다. 바울의 관심, 신의원이 관심처럼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구원에 관심가지고 산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성우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상임부부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총영사관,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 열어

제3, 이승우 변호사, 4차 3D 모델러 초청

LA총영사관은 청년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14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제 3, 4차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3차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민법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해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자 및 체류 자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J-1인턴이나 F-1유학 비자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비자 자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 J-1인턴 후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J-1 waiver 제도, F-1 유학 후 OPT 기간 동안 H1B 받는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4차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SoCal K-Group 케빈 김 회장 진행으로 미국 3대 게임회사의 3D 모델러로 활동 중인 송지현(3D Environment Artist), 정병화(Senior Character Artist), 김원재(Lead 3D Artist)를 초청해서, 3D 모델러가 된 이유, 꿈의 직장인 현재 회사에 일하기까지 취업 활동 및 과정, 취업 당시 인터뷰 방식, 해외 게임개발사 취업 시 유학이나 비자 등 관련 사항, 포트폴리오 작성 요령, 실제 게임 개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협의 과정 등 3D 모델러로서 게임회사에서의 경험 등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게임업계 취업이라는 현재 뜨거운 관심분야를 소재로 한국에서도 140명이 참가했다(사전 참가신청자 540명).

(정리: 박준호 기자)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심창섭 담임목사 사임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심창섭 담임목사(46)가 갈보리 공동체를 떠난다. 심창섭 목사는 지난 4월 4일 교회 측에 건강문제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심 목사는 2015년 갈보리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원하트미니스트리 Simple Worship 재개

문화사역 단체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했던 예배를 5월 1일 Youtube 온라인 예배를 시작으로 오펜지카운티에서 대면예배를 재개한다. 새 출발의 슬로건은 'Simple Worship'으로, 온라인을 비롯한 간편한 예배에 익숙해진 이 시대에게 원하트가 던지는 진짜 예배로의 도전이다. Simple Worship으로의 첫 발걸음은 4월 24일 베데스다대학의 스튜디오에서 녹화로 시작되며, 5월 1일 저녁 8시 Youtube 'OneheartTV'에 오픈된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대면예배, 화요 찬양모임은 5월 18일 저녁 7시30분, 라미라다에 위치한 오버플로요교회(담임 김충만 목사) 본당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myoneheartministry@gmail.com

월드미션대 음악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음악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설했다. 본교 음악과(음악과장 윤임상 교수)는 가을학기부터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과정은 음악석사(Master of Arts in Music)와 교회음악박사(Doctor of Church Music)다.

▲문의: (213)388-1000

한인가정상담소 자녀교육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가 평소 한인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 이번 세미나는 디어 수잔(Dear Susan) 세미나 시즌2이자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시리즈로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된다. 세미나 주제는 △4일 우리아이 행복한 뇌 발달 △11일 자존감 키우기의 교육법 △18일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양육법 △25일 유아기의 애착과 정서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Zoom)미팅으로 무료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http://tinyurl.com/dearsusan에서 사전 등록해야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35-4848, mlee@kfamla.org

주님세운교회 나라살리기 일천번제 기도회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해결과 현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상정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미국을 위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로 열리고 있다. 기도회 시간은 오전 6시다.

▲문의: (310)325-4020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입학원서 신청 이벤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2021 가을 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GMU 로고가 있는 64G USB를 선착순 3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행정처장 제임스구 교수는 "GMU는 현재 ATS, TRACS, ABHE 3개 인가기관의 정회원 학교로 대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8개의 정규 학위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ACSI가 인정하는 사립학교 교사자격을 갖춘 우수한 신학교로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입학원서 우편발송 신청 링크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u8ZDglt_9n88Y0dAu22-ADTDiPVKcxBeLNx-9t9UYldA5rtQ/viewform).

▲문의: (714)525-0088 #101, 이메일 admissions@gm.edu

'환난의 강을 건너라' 간증

주님의영광교회,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부흥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부흥성회를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했다.

25일 오전 10시에 넷째 날 집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승훈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안창록 집사 대표기도와 성가대 찬양에 이어 박순애 전도사가 '환난의 강을 건너라(시 50: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순애 전도사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게 됐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게 됐다"며 "죽음 같은 가시밭길에 서게 됐고 모든 것이 부서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 달려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

혜와 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갔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을 위해 기도를 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다. 놓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놓게 됐다. 감당할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죽음 같은 시간표를 지나올 때 하나님은 절망의 바닥에서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갔던 많은 날들을 통해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심령이 통회하는 기도다. 우리의 큰 고난은 큰 능력이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며 "완전히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여호와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큰 환란은 큰 기적이 보상으로 준비돼있다. 우리 인생의 환란 중에도 큰 기적이 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애 전도사는 집회기간 동안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라는 주제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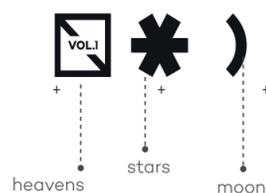
(박준호 기자)



박순애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이단·사이비 경계...봉사활동 속 검은 손길

신천지 등 이미지 세탁과 포교 노린 구호사업, 무료봉사

본래 목적은 자신들의 교리 전파임에도 이를 숨기고 봉사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악용하려는 사이비·이단 종교 단체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비·이단종교문제 연구소 현대종교(소장 탁지원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아 '이단들의 봉사활동 천태만상(千態萬象)'이란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사이비·이단이 펼치는 봉사활동 유형은 주로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구호사업형이다. 이단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과 비상 상황 시 기부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며 단체의 이미

지 개선을 꾀한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써달라며 12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향후 신천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을 고려해 이를 거부했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단들은 대부분 봉사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단 봉사를 통해 얻는 이익을 활용할 목적이 더 크다. 때론 자신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정리해 관련 포상을 하는 정부 기관 등에 직접 추천해 수상을 노리기도 한다. 이른바 수상요구형이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옛 안상홍증인회)가 독보적이다. 탁지원 소장은 2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들은 지역 일보와 통화에서 '이들은 지역 국가적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며 직접 관련 관공서 등에 연락해 수상을 요청하기도 한다'면서 '언론사에 광고비 등을 지원하며 해당 사례를 기사화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이단 시비 관련 재판에 활용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펙쌓기형도 있다. 이단은 벽화 그리기 봉사 등에 나서면 봉사점수를 채울 수 있다며 소속 청소년과 청년들을 미혹하기도 한다. 신천지는 마을정화 봉사에 나선다며 경기도 파주시의 한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 탁 소장은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일부 학생 신도들의 경우 이를 입시용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기도 한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골지역 노인들에게 마사지 등 무료 봉사를 해준 다며 접근하는 의료건강형도 있다. 탁 소장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면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지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봉사형이다.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는 최근까지도 남미 지역에서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스캠프' 등을 열었다. 국제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박옥수 대표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이끌거나 자신들의 교리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탁 소장은 "봉사단체일지라도 검증에 예의를 두지 말고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죄인이 의인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남보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기 훈련과 수양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단지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도덕, 사회, 나라의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죄의 시작은 첫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맛과 틀림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교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왔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죄가 유전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세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므로 시작된 죄의 질병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맺듯이, 아담이라는 죄인의 나무에서 죄인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원죄에서 풀려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의인 예수님에게 점령됨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죄인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bible66@gmail.com

89% "경제보다 온난화 방지 먼저"

기독교인 기후위기 민감...기사연, 개신교인 1000명 설문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리스천부터 하나님 창조세계를 보존·관리할 의무를 지닌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 지난해 7월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식 결과를 보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질문에 66.4%가 '매우 심각', 30.6%가 '약간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둘을 합쳐 97.0%가 심각성에 동의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6%에 그쳤

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7월 같은 조사보다 심각성 인식이 두드러졌다. 당시는 개신교인의 41.1%가 '매우 심각' 53.1%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 답변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엔 개신교인 1000명뿐만 아니라 비개신교인 1000명도 조사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개신교인은 94.2%, 비개신교인은 92.4%였다. 믿는 이들이 기후위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지난해 개신교인 조사에서 74.5%는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생긴 사회적 재난'이라고 답했다. '다른 질병처럼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이란 답변은 17.7%에 그쳤다.

경제 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가운데 우선돼야 할 것을 묻는 말엔 무려 88.9%가 '경제 성장이 안 되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11.1%만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처에 관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이지만 교회의 구체적 실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기사연 조사 분석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신익상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는 21일 "기후위기 인식은 높지만 나에게 긴급한 필요를 순서대로 꼽으면 당장은 아니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렇기에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부터 공부하고 습관을 바꾸며 설교를 통해 기후위기 행동을 강조하고 성도들과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 한국교회의 다른 정치적 문제들과 비교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존을 도모하자는 기후위기 대응 이슈는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큰 주제"라면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구체적 실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기사연 조사 분석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신익상

랐지만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양한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은혜"다.

스토트는 "신적 영감이란 독특한 과정이 각 저자의 개성을 절대 훼손치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서문에 적

었다. 영미권에서 쇄를 거듭해 나온 명작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면 컬러 삽화를 만나볼 수 있다. 스토트의 설명을 따라 성경을 더 깊이 읽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아신대) 교육연구소와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총 5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제1회 아신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제1회 아신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교회학교와 대한학교의 교사와 사역자들이 그들의 열정과 따프로 만들어 낸 다양한 교육 미디어를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아신대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섬길 기독교 미디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새학기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미디어에 관심 있는 기독교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학교 중고등학생들 역시 자유 주제로 이번 공모전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으며 각 부문마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이 수여된다.

특히 아신대 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숙경 교수는 "이제는 미디어가 교회들이 성도들과 접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미디어가 없었다면 비대면이 불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렸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적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양성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연구소(031-770-7723, edu@acts.ac.kr)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기총, 내홍 봉합 물꼬 텃다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 간담회...임시총회 소집 요청

조직 정상화를 위한 대표회장 선출 방안과 시기 등을 두고 최근 내부 갈등을 빚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텃다.

14일 한기총에 따르면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한기총 소속 28개 회원 교단·단체장이 모인 한기총교단단체장협의회(한교협)의 김자연 김창수 박종선 김송수 목사, 비상대책위원회 엄기호 김정한 목사 등 만나 간담회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교협 등이 사무국에 접수한 임시총회 개최 요청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김 직무대행의 전방적인 상황 설명에 공감을 표했고, 김 직무대행이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자 간의 뜻을 모은 결의서도 만들었다. 결의서에는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한기총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김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임시총회 개최 여부, 일정과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과 김 직무대행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조만간 법원에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임시총회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ACTS 신학과 북한선교" 주제

아세아연합신학대 "제11차 ACTS신학포럼"

"제11차 ACTS신학포럼"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로 "ACTS 신학과 북한선교"라는 주제 하에 지난 4월 19일 양평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학회로 진행됐다.

제11차 ACTS신학포럼은 북한선교에 있어 ACTS 신학공관 운동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ACTS가 펼치고 있는 "ACTS 신학/신앙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하려는 운동으로써 다양한 학제 간의 통합적 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복음에 방점을 두는 학문연구를 촉진하는 큰 의미를 지닌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11차 ACTS신학포럼은 신학연구소 소장인 박응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발표된 논문

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인 정지웅 교수의 "ACTS 신학과 북한선교"와 선교대학원 북한선교학 교수인 조기연 교수의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 신학의 가능성"이었다.

정지웅 교수는 논문을 통해 현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그 원인을 내·외적 배경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논하면서, ACTS 신학운동의 교회연합운동과 교회회복운동이 북한 선교와 통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논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해결돼야 할 큰 과제라며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 내 교회연합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기독교

통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기독교 교류, 북한 선교까지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제도적 마련으로서, 남한의 기독교 교단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회연합운동이 필요하며, 2)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해 기독교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교회회복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ACTS 신학-신앙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실제적 롤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한 서광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를 제시했다.

조기연 교수는 논문발표를 통해 북한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유형교회 회복과 무형교회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특히 북한교회 재건위원회의 원칙(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창구의 단일화, 단일 기독교단 형성 유도, 북한교회의 자립 촉구)과 정신을 계승해 현재의 북한선교가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변화된 북한의 상황을 소개하며 탈북민 증가는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적 배경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유형교회 회복을 위해 서 조 교수는 1)북한교회 재건위원회의 원칙 정신을 계승하되, 변화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국교회가 연합할 필요가 있다. 2)북한선교 상황 속에서 발생

한 교회연합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통일 후 북한선교는 경쟁을 지양하고 모든 교단 이 선교적 분할 협의를 통해 진행되, 북한교회의 참여와 협력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 교수는 북한의 무형교회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ACTS신학과 신학공관운동의 가능성 또한 제안했다.

논문 발표 후 조직신학 교수인 정홍일 교수와 북한선교학 교수인 정종기 교수의 간단한 논평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기사제공: ACTS)

선교의 창 (16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여호와의 살롬” 이 필요한 미얀마

2021년 들어서 미얀마가 군인들의 쿠데타로 혼돈 가운데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항하는 가운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군인들은 발표하고 이에 맞서는 군중들은 평화적 시위를 벗어나 점차 소수민족 중심으로 무장을 시작하고 있다. 만일 내전으로 비화된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다. COVID19도 버거운 이 때에 정치적 소동들이까지 겹치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미얀마의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UN과 서구 지도자들이 경고 및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만 쿠데타 세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도 되는 건가?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저들 5500백만 민족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얀마가 살상을 멈추고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기도하며 원가 역할을 해야 한다.

1989년에 미얀마(Myanmar)로 국호를 변경하였다. 국경은 북서쪽으로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라오스 그리고 남동쪽으로 태국이 위치한 5개 국가와 접하고 있다. 총 면적은 678,500km²로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40번째이다.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5,500만 명이며 수도는 네피도이고 최대 도시는 양곤이다.

이 나라는 135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68%가 주류인 버마족이며 나머지 32%가 여러 소수민족이다. 미

얀마는 불교가 왕성한 다종교권 국가이다.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87.9% 정도가 불교도이다. 이 밖에 기독교가 6.2%, 무슬림이 4.3%, 토속신앙 0.8%, 힌두교 0.5%, 무종교 0.2% 등이다. 미얀마에서는 50만 명의 승려들과 7만5천명의 비구니들이 있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의 상징이며 현재 사원과 불탑이 3,000여 개 있다. 대다수의 집안에는 불상을 놓아두는 “페아칸”이라는 방을 두고 있다. 저들은 매일 아침 그 방의 불상 앞에 가서 향을 피우며 절을 하고 참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다. 그들은 불교적 문화와 가치관을 앞세우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현실적

아 대화법 자체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직접적이기보다는 유연한 표현을 쓴다. 저들이 평생 절제해야 하는 세 가지는 탐욕을 버리고 화를 내지 않으며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3. 불행했던 근대 역사

미얀마에 사람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천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랜 세월동안 여러 민족들이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반복했다. 9세기경 버마족이 들어와 1050년대에 버마 왕국을 세웠으며 점차 세를 넓혀 나가며 버마족의 언어, 문화,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미얀마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나라는 1824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고 1942-1945년에는 일본의

족들 간의 민족분쟁으로 기나긴 내전을 겪어왔다. 2011년 아웅산 수치 중심의 문명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았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아침에 미얀마 육군 장군인 민 아웅 흘라잉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4. 일반적 대책

현재 미얀마는 계엄령 상태이다. 시민들은 전국적으로 쿠데타 세력에 항거하고 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으며 연행되어가고 있다. 평화적 시위대는 각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UN에도 평화유지군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저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진영은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 힘을 합쳐 연방군을 창설하려고 있다. 이럴 경우 군부와의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미얀마가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크리스천 정치지도자들이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군인과 경찰이 동족인 민간인을 향해 총 뿌리를 겨누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 이는 가장

미얀마는 1813년 미국이 파송한 최초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선(Adoniram Judson)에 의해 개신교가 시작되었다. 그는 미얀마에 도착한 이후 6년 만인 1819년에 처음으로 회심자를 얻었다. 그 이후 복음화율이 매년 5-6%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종족별로 보면 전체 인구의 10%미만인 까친족, 꺼인족이 90%이상이며 전 인구의 68%인 버마족은 0.3%미만으로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얀마 선교는 첫째, 주류인 버마족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수민족을 통해 주류로 가는 길은 멀고 갈등만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의료 및 NGO를 통한 선교를 통하여 토착교회의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선교를 이루는 것이다. 셋째, 한류열풍을 타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드라마가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일반 정서와 한국인의 정서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한인선교사는 이러한 한류열풍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맺음 말

우리 인간은 몸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일지라도 그 통증이 전신으로 퍼진다. 지구촌의 인류는 공동운명체이다. 약 230개 나라 가운데 현재 미얀마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 갈등과 반목은 도를 넘었다. 금년에 끝장내야 한다. 우리는 민족과 국가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저 미얀마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속히 저 땅에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여호와의 살롬이 임하도록 중보하며 각자의 소임을 다 해야 한다. 힘들이 하는 이웃을 외면한 채 찬송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한뎀된 공교회라 말할 수 없다.

jrsong007@hanmail.net

미얀마는 135개 종족으로 구성된 공화국이다.

식민지배를 당했던 이 나라는 군사 쿠데타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계 교회는 미얀마에 평화가 깃들고 복음이 활활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얀마는 대통령이 일부 임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원 224석, 하원 440석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며, 정부수반은 국가행정위원회의 의장이다. 정치 역사는 전체적으로 군부의 탄압과 끊임 없는 민주화 시도에 대한 충돌들로 얼룩져 왔다.

2. 영적인 진단

로 의지하는 대상은 토속신앙의 본체인 '나트(Nat)'이다. 나트는 탁월한 힘과 광채를 지닌 일종의 생명체로 정령을 의미한다. 낮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다. 미얀마인들은 모든 자연현상과 만물에는 그것을 관장하는 주인 즉 낮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

식민지였다. 그러다가 1948년 1월 4일에 공식적으로 독립 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바로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미얀마는 독립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류인 버마족과 수적 열세인 소수민

족 큰 비극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된다. 이참에 군부와 민간단체의 화해뿐만 아니라 주류인 버마족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간의 해묵은 대결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저들의 힘만으로는 한계적이다.

5. 선교적 역할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②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의 고향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 탁월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안성맞춤인 교육 도시였지만 바울 부모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우게 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로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다른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34절)과 22장(3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성장했다고 자랑합니다. 사도행전에 두 번 언급되는 사도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공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이 전하는 가말리엘은 대 랍비(Arch-Rabbi) 혹은 최고의 랍비라는 의미의 '라반(Rabban)'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창시한 바리새인 지도자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은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미쉬나와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힐렐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 40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당시 권위 있는 삼마이 학파의 두 랍비-

세는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하고, 힐렐은 민족 교육에 헌신합니다. 힐렐은 당대에 모세가 누리는 영광과 권위를 누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힐렐은 파격적인 여유와 관용으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힐렐은 약자를 배려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예컨대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재혼을 파격적으로 용이하게 했고, 율법적인

로 주요 기관의 회장을 나시라 칭했습니다. 미쉬나는 '힐렐이 죽을 때 율법의 영광도 끝났다'고 전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힐렐의 권위와 영광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직 가말리엘만이 힐렐의 영광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가말리엘도 '나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힐렐의 아들

아들이요, 대 랍비 가말리엘의 아버지인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합니다. 랄프 하비는 당시 유대 지도층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언급되는 시몬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랄프 하비 등 몇몇 학자는 누가복음 2장의 시몬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가말리엘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아버지 시몬의 영향을 받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에게 유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바울, 스테반, 니고데모를 가르쳤고 말년에 자신도

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탈굼(Talgum)의 저자였던 온켈로스(Onkelos)가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온켈로스가 왕의 장례식 수준의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고, 최고의 스승 라반(Rabban) 가말리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전합니다. 요세푸스는 가말리엘과 가말리엘의 손자 시몬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특히 시몬은 훗날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도 전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로 자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말리엘 제자 바울은 유대 사회 영향력과 융통성이 있는 해석으로 초대교회 해외선교를 주도합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가 선교적 회의가 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가말리엘의 영향으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의 새로운 구약해석의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서신서와 설교에서 바울은 구약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바울은 전통적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와 다른 구약 해석이 신약과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기독교론과 선교론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전향적인 구약 해석에 당대의 랍비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말리엘 문하생의 권위입니다.

chap1207@hotmail.com

바울은 구약을 기독교론과 선교론 관점으로 해석

랍비들이 바울의 구약해석 반박 못한 이유는 가말리엘 제자이기 때문

셰마이아(Shemaiah)와 아브탈리온(Abtalion)-에게 교육을 받고 힐렐 학파를 창시합니다.

120년을 살았던 힐렐은 모세의 삶과 유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40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80세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련을 하고, 힐렐은 랍비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모

안식일 적용과 지나치게 엄격한 심일조를 반대했습니다. 힐렐은 상대인 삼마이 학파에 비해서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학파였습니다. 요컨대 힐렐은 진보적이고 인권의식이 강한 랍비였습니다. 훗날 가말리엘도 힐렐 학파의 최고 랍비로 활동합니다.

역사자료는 힐렐은 산헤드린 회장인 나시(Nasi)라고 전합니다. 나시는 왕자라는 의미

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역사자료는 힐렐의 아들 시몬도 나시(Nasi), 즉 산헤드린 회장을 아주 잠시 맡은 후 사임하고 초야에 묻혀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몇몇 신약주석가(신약신학자)들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경건한 사람 시몬'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랄프 하비는 대학자 힐렐의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 함께 스테반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멸망 18년 전에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난파당한 때와 비슷한 시점입니다. 아람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시17:8)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눈동자는 몸의 어떤 부분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어떠한 부분보다도 아주 민감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뼈의 중앙에 놓으시고 여러 겹으로 감싸시고 눈썹에 울타리를 치시고 눈꺼풀에 커튼을 치시고 속눈썹으로 답을 치시고 위험을 제 빨리 감지하게 하셔서 눈을 자동으로 감게 하셔서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하게 숨겨주십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므로써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한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고 오직 더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이다(시17:9-15)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은 위험한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므로써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한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고 오직 더 좋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시18:1)

시편 18편은 “감사의 시”로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머리말에서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그가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호와와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와 종”이라고 밝힌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보다 “여호와와 종”

이라는 사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한지요! 2)“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다”고 했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신앙고백입니다.

목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시18: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에서 “사랑”이란 뜻인 “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표현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만 나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된 말인데 본 구절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이 주어로 이 단어가 사

용됐습니다. 이 한 단어를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시18:1-2)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배경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힘이 있다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의 삶은 땅에 있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시18:3-6)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늘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아뢰리니, 얻으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동사입니다. 나를 늘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이제부터 늘 아뢰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

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원수를 한순간에 흠시키고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4)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1)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는 예배 앞에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았듯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오직 그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하고, 그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예배의 본질이 많이 희석되어가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대 교회들이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한다. 즉, 코로나 시대에 영성을 통한 예배가 대세로 되면서 예배를 구성하는 사역자들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려는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기술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또 예배 음악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의 고백으로 매 순간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하는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여 인기영합주의와 심미주의적 요소를 드러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물들게 되는 중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노진준 목사는 지난 2020 가을학기 월드미선대학교에서 “복음적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통해 “현대교회는 나르시시즘 예배에 물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많이 나타나 있던 사회적 현상이었다. 하

C S 루이스는 20세기 초 불버리즘(Bulverism)이라는 신종어를 만들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생각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도 없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불버리즘에 고착돼 본질 놓치는 잘못 범치말아야

지만 코로나 시대에 영성예배가 보편화 되어가면서 예배자의 대상이 단순히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예배지도자들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니 그 현상은 더 가속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 그가 틀렸다고 가정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부지런히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통해 주의를 분산시켜 무작정 그가 틀렸다고 가정할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결로써 C S 루이스가 당시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개탄하며 쓴 말이다. 이 사상은 교회에 다양한 이론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의 결과로 예배에서 무대 위에 있는 예배자들(설교자, 기도자, 음악가 등)이 인기 영합주의(Populism), 심미주의(Aestheticism)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더 깊이 물들어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뛰어난 연주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수사학적으로 훌륭한 기술을 갖추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말을 구사해서 좋은 영향력을 펼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예술음악을 펼쳐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를 즐겁게 하여 좋은 예술 음악인이라 칭찬을 받을까? 이러한 요소들에 깊은 관심과 부담을 갖고 그것을 목적 삼으려하니 내가 더 많이 중심이 되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음악인들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물들어가는 현상인 것이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밴드악기들(기타, 드럼, 키보드)이 예배음악 악기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이론을 내세워 예배에서 악기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런 악기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회중찬양을 인도하는 중요한 악기로 자리매김하여 잘 정착되어 사용하고 있다. 당시 이 악기들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예배음악의 본질에 근거하기보다는 너무 세속적인 악기라고 규정하고 교회음악 악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논리에 근거해 진리를 논하기보다 당시의 문화와 환경에 의해 편리함을 이론 삼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것을 필자는 불버리즘의 한 현상으로 본다.

20세기 초 의학과 심리학이 영성을 하나로 결합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성가인 폴 투루니에는 이런 고백을 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저술기법을 익히려려고 할까 봐 염려된다. 나는 지금처럼 단순함을 유지하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런 꾸밈없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영성예배들이 대세가 되면서 무대 위에 있는 예배자들(설교자, 기도자, 음악가 등)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주연배우(Actor, Actress)들이 되려는 나르시시즘의 유혹들이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때 필자는 예배의 모든 사역자들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어 온전한 예배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6)



제3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와 육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단순히 영적으로 사랑 받는 자일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사랑 받는 자이다. 육체적 친밀함이 없는 사랑이란 반쪽 사랑이고 영적 사랑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헨리 나우웬은 자기 표현도 잘못하고 정신활동을 할 수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육체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육신 없이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다. 나우웬은 장애인들을 통해 육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신부의 결혼을 급하는 천주교적 전통과 성을 부정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우웬의 외로움은 더욱 컸으며 사랑받는 아들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야 온전히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

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요이1:7)라고 말하였다. 호크마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이단사상 중의 하나가 곧 가현설이다. 이 같은 사상을 취하는 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을 지니시고 음식을 드시며 피를 흘린 채 죽으신 것 등은 다만 그와 같이 보이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독교 안에서든 물질은 약하게 보아서 성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돈을 버는 직업을 천하게 생각하였다. 성은 좋은 것이다. 만약 성적욕구가 없었다면 결혼은 없었을 것이며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

목사가 되는 것만 소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임을 종교개혁자들은 외쳤다.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으며 그 돈을 저축하여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이다. 물은 위험한 것이지만 물이 없으면 배가 갈 수가 없다. 물질은 잘못 쓰면 위험한 것

사상이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상과는 무관하다는 이론론에 빠진다. 그러나 물질과 육체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다(창1:31).

나약대학 신약교수인 김동수 교수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다.



헨리 나우웬은 아담을 통해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 아담은 그의 육체로 나우웬을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소속이 되도록 인도하였다..

나눔께서 성적욕구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여 인류를 존속시키신 것이다. 불은 재산을 태우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한 것이지만 불은 인간이 발명한 귀한 것이었다. 음식을 익혀먹고 추위를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성적욕구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을 버는 직업도 귀한 것이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공부만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지만 잘 쓰면 인간의 행복을 위하고 물질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 불교의 사상도 육체의 세상을 부정한다. 이 세상은 환상이고 그림자임을 아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유교의 사상도 육체를 천대한다. 사농공상 계급이 있어서 돈을 취급하지 않는 선비가 제일 귀하고 돈을 많이 다루는 상인이 제일 낮은 계급이 되었다.

이런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도 물질과 육체를 약하게 보는

“바울은 사람의 육신을 율법을 통해서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장소로 제시하고 있다 육신은 인간의 욕망이 발원하는 처소라는 점에서 죄가 거하는 거주지인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육신 자체를 악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육신을 죄의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NIV 번역은 옳은 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육신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단순히 마음과 대비되는 육신을 의미를 너무 확대한

제로 펼쳐지는 지상 환경이다.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공중에 띄워 놓으시거나 황량한 들판에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시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살게 하신 것이다.”

복지와 구제는 정부가 하고 다른 종교도 하나까 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하는 전도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생각과 비슷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주의도를 약

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교회일수록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강조한다. 복지와 구제는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전도는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전도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만큼 교회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구원이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내는 고객확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교의 비즈니스야말로 투자 없이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사업이 된다. 종교 사기꾼들이 교주 노릇을 하며 사치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 섬김이 없이 지식으로만 전도한 기성교회의 잘못된 토양이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모른다. 영혼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영혼이 살고 있는 몸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 영혼구원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공산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교회는 지배층과 결탁하여 사치를 누리면서 가난하고 약자들은 죽어 천국이 있으니 이 땅의 가난과 억압을 그냥 인내하라고 하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스와 레닌은 기독교가 혁명을 가로막는 아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의 서양 기독교는 그리고 지구 크리스트교는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 하면서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한다(약2:16).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하면서 영혼은 구원해주시는데 배고픈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복음은 영과 육을 구원하는 총체적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miju92@gmail.com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첫째, 복음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복음적인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하는 회중들로 하여금 복음의 감동을 통한 동감이 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즉 예배에서 회중들은 연주자(Performer)가 되어 하나님을 존귀케 하도록 연주하는 것이고 무대 위에 인도자들은 그것을 돕는(Helper) 역

할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버림 사상 고착화 되어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 문화 속에 예배와 음악은 참 많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바뀌어가며 진실을 가장한 거짓의 유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진 이론들이 내 사역에 정착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참 외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바알신을 물리치고 난 후ैसे

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만 엘리야에게 답해주셨다(왕상19:13).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왕상19:18)이 있다

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 7천명과 같은 나르시시즘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훈탁한 이 시대에 바르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iyoon@wmu.edu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 중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서류 제출처 및 마감일

- 제출 마감일: 2021년 4월 30일까지
- 모든 서류는info@mybcpc.org에서 e-mail로만 접수합니다.
- 추천서는 아래 교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신임회장 김명전 장로

전파 통한 복음사역...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겠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 25차 총회 및 대회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제 7대 회장으로 굿TV 대표이사 김명전 장로가 선출됐다. 이로써 세계한인방송협회(WAKB)

회장으로 사역 중인 김명전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WCBA와 WAKB 회장을 겸임하게 됐다. 총회기간 중 김명전 회장을 만나 보았다.

“WCBA는 26년 역사를 가진 단체입니다. 지난 1995년 주선영 목사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선배 방송인들이 방송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창립한 단체지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선배 동료 기독교방송인들이 복음사역을 감당기 위해 여기까지 온 수고와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는 신임회장으로 지난 26년을 바라보며 WCBA를 이끌어온 선배 방송인들의 헌신과 수고에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협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딱히 포부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WCBA가 앞으로의 사역이 잘 전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독교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은 다르지만 전파를 통한 복음사역이니까요. 즉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고요.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몫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자의 WCBA 최근 사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다. 그중 첫 번째는 협회 창립이후 작년까지 발자취를 모은 기록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발자취를 모은 25년사가 발간됐습니다. ‘복음으로 땅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는데, WCBA의 활동은 비록 낙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자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기독교방송사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협력 등을 통해 회원방송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

는 50여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리역할을 해왔으며 회원사간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방송협회와 협력해 사역범위 확대 WCBA 25년사 발간·다음세대 참여위해 협회도 오픈

하지만 언론환경상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해외 방송사들은 더 열악한 편이구요. 그래서 한국과 해외의 방송사들간 프로그램을 교환 협력하는데 WCBA가

세계기독교언론협회(세계언론)의 협력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명전 회장은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며 방송과 신문의 차이가 있지만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

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서로 협력해 나아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며 세계언론과의 협력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WCBA 대회기간 중에 열린 WAKB(세계한인방송협회) 회장에 연임이 되는 등 양대 기구의 회장으로 섬기게 됐다”며 “이 두 협회가 함께 사역해 나간다면 복음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CBA는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이며 WAKB는 세계한인방송협회입니다. WAKB는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방송사들이 함께하는 단체이며 일반방송사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단체”라며 “WCBA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WAKB는 복음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WAKB의 지난 임기동안 한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한 이유는

인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더더욱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번 총회에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기에 국무총리가 영장으로 축사를 보내 줄 수 있었으니까요.”

WCBA 신임회장 취임사에서 다음세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 김명전 회장은 다음 세대는 반드시 품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LA를 방문해 회원사들과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고요. 본 협회가 교회들과 협력해 다음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세대들에게도 문을 열어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년 회장임기 동안 WCBA와 WAKB에 대한 바램에 대해서는 “주어진 환경이 녹록치 않아 어떤 거창한 것들을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일단 법인설립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사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년 임기동안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호르몬 대체요법

사무직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 외래 진료소에 찾아왔다. 이 여성은 지난 10년간 여성호르몬 에스트로

겐을 꾸준히 복용해왔고 덕분에 폐경 후에 오는 신체적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병원을 찾은 이유는 어머니가 유방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신문에서 호르몬요법이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앞으로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여성호르몬제는 지난 30년 동안 폐경기 여성에게 젊어지는 약으로 인식되며 널리 사용되었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난소의 위축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은 안면 홍조(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 전신 무력감, 식욕 감퇴,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여성의

심장병이나 중풍 등의 발생 빈도가 폐경 후 크게 늘고 골다공증도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에게는 폐경 자체가 건강상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폐경기 여성들은 여성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중

꼭 필요한 경우만 복용

합해 보면 여성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안면 홍조, 불면증 등 폐경 후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중풍, 폐

전색(폐혈관의 혈액이 굳어지는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호르몬 치료를 권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호르몬제 치료를 받아온 경우는 칼슘이나 다른 대체 약물로 바꾸도록 권유하고 있다.

다만 심한 안면 홍조나 불면 등 폐경 후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여성호르몬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복용하거나 하루절러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저용량의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 후 증상을 완화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면서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유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호르몬을 끊는 것보다 용량을 낮추어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폐경 직후 심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는 사람은 6개월 정도 단기간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호르몬 치료를 중단해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 사람은 호르몬 치료를 끊고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별도로 받으면 된다.

▲문의:213-383-9388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이고,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입니다."

4/26(월) - 5/16(주일) 21일간 기도회를 은혜롭게 완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세요. 호프센터 2층 HWY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6시에 진행됩니다. 5시부터 오셔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합니다.